조선일보 시흥군편

苦學堂素人劇團

今日永登浦로出發할터

데일회시험을성황으로마치고

동대문밧안암동(安岩洞)에잇는고학당에서 소인극단(素人劇團)을조직하야가지고 하기휴학을리용하야 각디방을순회할터인데 제일밤에는먼저 시험하기의하야 그 당교실에서 데일회로흐행한다 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날밤에 일긔가 씨는듯이 더웁도록구하고 고학당을동정하는 마음으로 모히여온관람객은 예상밧게 다수에일으러 성황을이루엇스며

관람긱중 에한사람인리인환(李仁煥)씨는무산자의교육긔관을사랑하야 긔부금오원으로써 동정을표하엿고 그극단일행은 에덩과가티 금일평양포(永登浦)를 향하야 출발 할터인데 그들의흐행하는각본 (脚本)은 고성 (苦聲) 이막과 황금국(黃金國)이막과 우정(友情)삼막등인데 그각본의내용도자미잇고 출연자의기술도소인극으로는

매우연숙 하거니와각본이자미잇느니 출연자의기술이 정교하니하는것보다도 무산자의 자데로 학문을배호고자하야 움집생활을하며 매일죠밥으로 련명을하야가는 그들의사정을동정하야 간곳마다 재직야와가티 예상밧게성황을일울것을 가히예측할수 잇슬션안이라 그각본내용은 현사회리면에잠겨잇는불합리(不合理)한점함을솔직하게글이여내인것이라아모라도한번볼필요가잇더라

▶ 1926.5.9 朝(2)

盟罷職工中에서

十餘名을 檢擧取調

영등포경찰이간섭하야 맹파공중에서십명검거

永登浦京城紡績盟罷續報

영등포 경성방적회사 동맹파업이생긴후 그곳영등포경찰서(鑑終署)에서는 지난칠월오후부터 비상한활동을 개시하야 그파업직공중에 수노자(首謀者)도 인정할사람과 상조회(相助會) 간부로잇는 오원욕(吳元鍾)등 열사람을 검거하야 방금취조를하는중 이라더라

各團體委員의 紡績盟罷調査 됴사위원등출발

영등포(永登浦)에잇는경성방적주식회사(京城紡績株式會社)의 동맹파업사건의 진상을 됴사키 위하야시내립정뎡(笠井町)엽두 청년회(協友青年會)에서는김성규(金成圭)씨를인사동(仁寺洞) 한양청년련맹(漢陽青年聯盟)에서는 권태동(權泰東)씨를 신흥청년동맹(新興青年同盟)에서는 리명원(李明遠)씨를 각각 파견하엿다고

盟罷職工中에서

十餘名을 檢擧取調.
永登浦 京城紡績盟罷로 경찰은 相助會간부등을 검거

▶ 1926.5.21 朝(2)

異晩圭氏放免

경성방적주식회사(京城紡績株式會社) 영등포공장(永登浦工場)직공남녀삼백륙십여명의동맹파업 련말을 됴사하기위하야 파송되엿든경성로동회간부 리만규(京城勞働會幹部異晩圭)씨는 지난 구일에 영등포경찰서에 검속되여십일간 구류처분을 바덧든바 이십일오전구시에방면되엿는데 경성로동회원과 파업직공(罷業職工)다수의출영이잇섯더라

異晩圭氏 放免

경성방적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파송되엿든 異晩圭氏와 파업직공 다수방면

▶ 1926.6.5 夕(2)

永登浦署도

大活動

자동차를몰아 형사김포출장

지난이일 오후한시경에 영등포(永登浦)경찰서형사수명이어떤 수상한 청년한명을 다리고자동차로김포읍내(金浦邑內)에지와서 바삐리에 각방면으로탐문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은범수업스나 아마무슨 중대사건인듯하다더라(김포)

永登浦署도

大活動
자동차를 몰아 형사 김포 출장

▶ 1926.11.14 夕(2)

關係업는 者에게 無理하게 自意差押

영등포금융조합서기가 一般의 非難이 藉藉

시흥군 영등포 금융조합은 장래 유망한 리양디(梨花洞)의 영등포에잇서 다방면에의 중심기관(中心機關)이되며 산업개발(産業開發)상 그사명을 다하지아니하면아니될 니위에잇슴도불구하고 근일에와서는 사무원들의 태도가넘우나교만함뿐아니라고 리대금업적이상의 행동을 취함으로 일반조합원간에는 조합에 대한 비난이자자하는중 근일에 이르러는 분대 [illegible] 대하여 일반의비난과 원성이날로 한층 하다는데 이번그사실을 여러동료 건데 지난봄에 동조합서기현모는 영등포 [illegible] 시흥군청의 [illegible] 차압 북면도림리 오칠공번디 조합원인 리익선(同李益善面道林里五七〇番地組合員李益善) 에게로가 차압 假差押)을 하려갓든바 마참리익선은 출타하고 업슴으로 권리리씨의 당실되는 그이웃에사는 리승부(李承茂)의집에 가서 권리리씨에대한채무의 변상을지라함으로 리승부는 리익선의채무에대하야는한등관계가업다하고 불응하얏든바 조합서기현모는자기단독의사로부터히리승부의 가산을 수색한결과 권리리씨의 문패와 명함몇장을발견하야 가지고 이것을유일한증거로삼아 [illegible] 시흥군청의 [illegible] 차압하얏스며 리승부의 부친되는 리혜선(李惠善)은 조합감사역(組合監査役) 에 잇슴도불구하고 가치잇(假差押)을하는동시에권리리익선의보증인 (保證人)리대만(李大萬)윤교복(尹敎福)등의 재산까지합부로차압을하얏는데 권리보증인 윤교복에게 대하야는 권부를라 차압하고리대만에게는 불과 이삼간에지나지못하는 형식적 차압을하얏다는바 그내막은 보증인윤교복은 조합서기 현모와는교분이두텁지 못하고 리대만과는교분이 두터울뿐아니라 조합서기현모에게 집까지 사서주어그러한인지그와가티 몰상식한 행동과불공평한행위를 하얏슴으로 권리감사역 리혜선씨가 그몰상식한행동에 분개하야 즉시동조합장정리사(長非理事)를방문하고 여러가지 불법행동을 드러질문하얏든바 리사의 말이그것은자기가 직접한것이 아니요무하가한일이니나는 자세히 알수업스나하여간 잘못된일이니 곳취소하겠다는 대답을 함으로일반조합원은 불평인민들까지라도 비난이자자한몽시에 장차 문제는 확대되리다더다(영등포)

關係업는 者에게

無理하게 自意差押

영등포금융조합서기의 행위에 대해 일반의 비난이 자자

▶ 1927.2.16 朝(2)

慰安講演盛況

징내장노는인산인해

본보시흥지국(始興支局)에서본독자위안강연을연다함은금보한바어니와 때낫과가티 지난십삼일에는 영등포 부덕관(永登武德館)에서 연사리긍종(李肯鍾)씨가 「세바람」이라는 제로 열렬한 웅변을토하야 만장청중에게 만흔늣김을 주고그이튿날인십사일에는 본사주필 안재홍(安在鴻)씨가 조선인의 생존능력이란 연제로 로량진(盧梁鎭)학교(盧梁學校)에서 열변을 토하야 [illegible] 장내장외는인산인해의 더성황을 이루엇고특히 후원하든구미양행(歐米洋行)에서는 「라디오」를 사용하야강연장에참예하지아흔이에게도 듯게하얏다는데 이번가튼성황은 영등포나 로량진에서 처음보는것이엇더라(시흥)

독자위안강연 인산인해

▶ 1928.11.29 (4)

湧興講習所

學藝會盛況

始興(西北面木洞里)湧興講習所 [illegible] 學藝會에서는 [illegible] 二十四日午後七時부터 同會館에서 [illegible] 開催되엇는데 [illegible] 學藝會가 開催되엇는데 [illegible] 男女兒童의 [illegible] 올 [illegible] 케하엿스며 少年 [illegible] 와 [illegible] 及 [illegible] 의 [illegible] 日 올새 [illegible] 하엿고 [illegible] 十一時頃에 大盛呼裡에 閉會하엿다 [illegible] 講習所는 [illegible] 第八九回 [illegible] 間의 短期에 그가러되엇다 [illegible] 것은 [illegible] 外의 成績이라고 一般은 [illegible] 己 [illegible] 다 하며 [illegible] 講習所를 [illegible] 하야 [illegible] 보관이 [illegible] 다 [illegible] 서 [illegible] 들어온 [illegible] 되고 [illegible] 다 [illegible] 라(始興)

始興湧興講習所

學藝會盛況

▶ 1929.2.27

始興

始興懷德區域上陵洞月十四日을期하야始興懷德支會主催로開催한다함은既報하엿거니와我定과가티四日午前九時부터懷德津渡興業年會四月에서開幕되여開會時便그運手들은各自自己의商技을出하여昨晨을決한는데은實로보는사람

[illegible]

들에게興味들주어스러大盛況裡에決勝이끗나자十五日午前六時頃에金長으로無事閉會하엿다고

▲一等洋今 [illegible] 賞牧 [illegible] 金馬計▲二等 [illegible] 生 [illegible] 銀▲三等 [illegible] 盃一組▲四等 [illegible] 賞▲五等李興 [illegible] 洋傘一箱子

▲馬興 [illegible] 商店十點▲李 [illegible] 永商店五點▲車雄 [illegible] 商店二點▲陸泳相商店三點▲呂興山商店三點▲申陵洋商店二點▲李 [illegible] 春商店二點

◇面長엄시月餘을지내는果川面果川面長金溶彬氏가去一月初에突然히辭職하여鄭管屬에서後任을物色中이라함은既報한바어니와年度來이갓가와오는지금까지面長의就任을보지못하게되어一般은궁금히알엔더러速히面長의就任되기를바란다는 [illegible] 에서도心願하기를마지안는다는바龍勝하는이도잇고其外出馬한이도몇사람이잇서서로派가되어競爭함으로選擇에困難하야決定을延行치못하는것가튼데一說에는意外의人物이面長席을占할는지도모른다하야一般은직못注目함엔더러近三個月間이나面長엄시보지못하게되어多少間疑惑도엄지안타고

면장업시 월여 지내는 과천면

▶ 1929.8.6

本社主催

歸鄕學生文字普及班通信 (四)

洞里蠶室를 利用

三人이 分擔하야 敎授

긔차통학생끼리 모혀 한글을 보급

三伏더위도잇고 滋進잇게 味行

慶興郡北面道林里 中央蠶室 李種台

◇今番夏期放學日에學校로서 貴社에서「한글」普及班을組織하야 歸鄕學生에게 付托하신다는 消息을 듯고 無限한 感激을 가지고 學校로서 [illegible] 五十枚와 [illegible] 人의 [illegible] 이 [illegible] 오면 京城에서 不遠한 始興郡北面道林里(永登浦에서 乘便으로 約二里)라는 村에서 數年前부터 形成된 汽車通學하게 되엇습니다 그럼으로 通學生들은 永學會를 組織하엿습니다 (中略) 은 他地에서 사람도 잇스나 大部는 [illegible]

이러지 못하[illegible] 或은 [illegible] 來 한글[illegible] 밧침法으로는 能熟하나 원번 잇침法은 勿論 알지 못함으로 以上 曆 [illegible] 을 上中下三班으로 分하야 三人이 分擔합니다

◇下級班은 ㅏㅓㅗㅜㅡㅣ와 ㄱㄴㄷㄹ字를 가르쳐 熟함에 따라 가갸字에 ㄱㄴ의 밧침하는 법을 가르치는 同時에 ㄱ와 ㅏ가 合하야 [illegible]가 되는 것을 說明하고 밧침을 아뒤에는 實例를 들어 理解를 식혀주도록 힘씁니다

◇中級班은 밧침을 [illegible] 하는 同時에 원본 [illegible] 說明하는데 [illegible] 容易히 [illegible] 班은 大部分이 [illegible]

◇[illegible] 에게 엇지 [illegible] 一層 라도 熟 [illegible] 加하지 아 [illegible] 구가 잇슬가! 참으로 三伏이 [illegible] 인지도 모르고 滋 [illegible] 行되 [illegible] 니다 [illegible] 로도 [illegible] 人者가 [illegible] 니다 그러나 [illegible] 依하야 [illegible] 에 [illegible] 니다 [illegible] 에게 [illegible] 니다 [illegible] 에 [illegible] 니다 [illegible] 에 [illegible] 니다 [illegible] 에

▶ 1930.2.2(7)

始興鄕栖大會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에서는 금번시흥퇴사대회(金始興鄕栖大會)를 오는이월구일에 로량진한남루(鷺梁津漢南樓)에서개최한다는데 참가규정과상품은다음과같다더라(시흥)

申請期日 陰正月九日까지
參加金 每人一圓五十錢

◇賞品

一等 十八金側腕卷一人
二等 掛鐘一人
三等 パイン萬年筆一人
四等 本報二個月分一人
五等 本報一個月分一人

始興鄕栖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二月九日에

▶ 1930.2.7(3)

始興鄕栖大會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에서는 구정초늘그리하야재래조선에고유(固有)한민중오락(民衆娛樂)중에하나인계이회 시흥퇴사대회(始興鄕栖大會)를 일월오후여섯시부터 로량진한강변한남루(鷺梁津漢江畔漢南樓)에서개최하는데 발서 각지로부터선수들의신청이만타하며 더욱이경성이갓가운만큼경성으로부터도선수들의 참가신청이 상당히만흐므로 본지국에서도 이에적당한모든준비에분망중이라더라(시흥)

始興鄕栖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八日에 개최

▶ 1930.2.12 (3)

始興擲柶大會

본보지국주최로 去八·九 兩日間 로량진한남루에서 개최

始興擲柶大會

본보지국주최로 去八·九 兩日間 로량진한남루에서 개최

▶ 1930.3.1(3)

計上한學級增設案을

新郡守가 削除

始興西面公普問題 증설비용을 면민들이 부담 한다고해도

▶ 1930.4.25(6)

堤防費滯納者 二百餘名財産差押

始興郡永登浦面에서 한강제방축조공사비를늣게낸다고

一般의問題展開를注目

시흥군영등포면에서는한강제방(漢江堤防)공사비부담금체납자의백여명중에 위선 이백여명에게 보낸산 차압처분통지를돌리고 그내용을 듯건대 총독부에서총공비일백사십오만원으로 한강방수제(漢江防水堤)공사를 맛해진후 리시작하여 영등포들 포위한제방이 이리공사가 오원밖경에는 조공되리라는데 이로인하야 매년 홍수피마다 일대봉이을 누기게 되고 방수제바깥에잇는 토지총면적이일백십여만평에달한다는데 총독부당국에서는하천령(河川令)에의하야 제방의안전을 위하여 그지방주민으로 부터총공비의 백분지이십이내에서 밧게되어 영등포에 토지를가진자는 주거하는사람으로부터 십만사천원이란거액을십오개년간 년부로 납입하도록 되엇슴으로 영등포면에서는 총인원 일천들백여명에 토지원 전부를 몰수할뿐 아니라 오백여명이 이상을 부과하야 징수하게되어 지난부터 맛들중 신미(辛尾) 외댓사람으로부터 민약한 영등포면에서 이와가티 과중한부담을 감할필요가 업다는 만대운동을 이르키게되엇다에 그와가티 체납자가 만케된것이라는데 지금까지 징수된금액은 사천여원임으로 체납금액이이천여원에달할 것이라는데 체납자총수는오백여명이라 수이라는데 일반은 앞으로 어떠한진전을 가질수록한다고 한다(시흥)

◇規定

一、募集人員 男三十名 女三十名
一、兒童年齡 滿九歲以上
一、志願期日 四月廿八日(月)一月末日)까지
一、申請場所 東亞日報長湖支局

堤防費滯納者

二百餘名 財産差押
始興郡 永登浦面에서

▶ 1931.6.9(7)

野藝大會開催

시흥지국후원

시외로 동인 [illegible]의 [illegible]과 한강철교(漢江鐵橋)하나를격하야 잇는지대로서 경성부편입 후보지로 대경성도시계획에 가치도 편입되어 물원만장래에 경성부로편입될것이며 근래에는 한강인도교(人道橋)기준공과한계천차(橋車)선로의 연장과 아울러 부영 경인 경수(京仁、京水)등철도의 개통으로교통기관의 완명을보게 됨따라 자못 장래의 발전을 보게되엇이 여하튼말아서는 장차 정당한계사지진전할지도몰수업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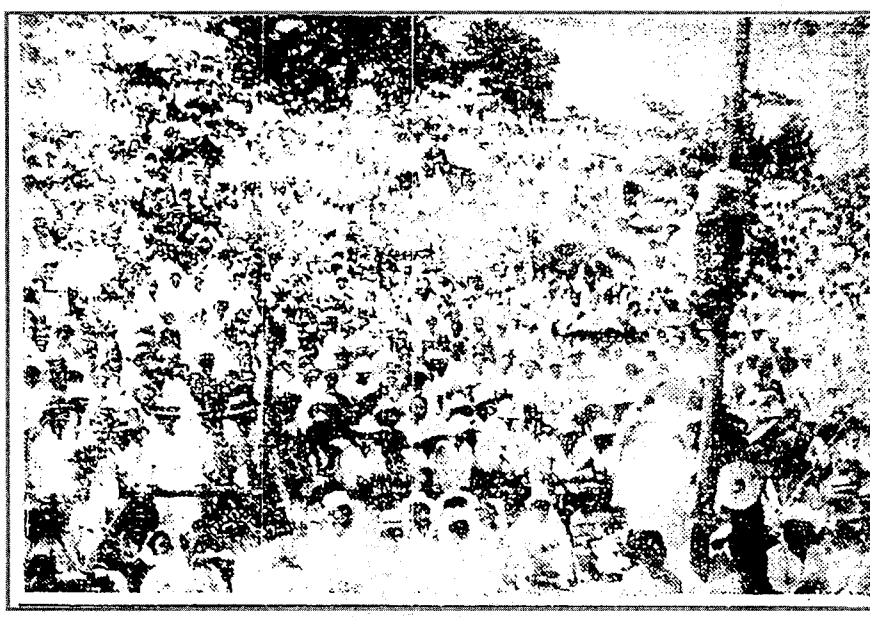
지로 발간책에힘써오든 레신삼 신사공일간을 취처서당시봉산유원(鳳山遊園)에서시민위안야예대회(野藝大會)를본보시흥지국 후원아래에 개최하리라는데 종목은국단 [illegible]과 소년 셰커-스단의 출연도 잇슴더이며 그밖에주가지 [illegible]은 기타흥미진진한것 [illegible]이라는바 일반의 인기는 지금보터 동야예대회보다 [illegible]되어 당일의성황을 예측할 수잇다하며 주최자인 동시민원동은 동대회의만전을 도모코자 하야 그준비에망갈되어 잇다고 한다

本報시흥支局後援下에 來十三日부터

▶ 1931.6.18(6)

鷺梁津市民慰安
野藝大會大盛況

【始興】 시외 로량진(市外鷺梁津)시민들의주최와 본보시흥지국(始興支局) 후원으로 십삼, 십사량일간에로량진 봉산유원(鳳山遊園)에서시민위안야예대회를(野藝大會)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지난 십삼일에는 제일일부 순서로 호청극단(虎聲劇團) 공연으로 개막되엿는바 정각전부터 운집하는 관객은누리 수만을산하게되여일대성황리에 제일일부는 맛치엇고 다음날인십사일에는 조선재래의산두희(山頭戲)노름으로 오전열한시경에 막이열리자이날 관중은 삼만여에달하여 과연분자그대로 대성황을 일우엇다한다



鷺梁津市民慰安

野藝大會 大盛況
本報始興支局後援下에 去十三日부터(寫)當大會광경

▶ 1931.8.24(4)

市場新設코
祝賀脚戲會
시흥군신동면에

【始興】 시흥군축산동업조합(始興郡畜産同業組合)과시흥군신동면(始興郡新東面)의련합주최로 지난음륙월이십구일, 칠월사일과 오늘구일에 신동면량재리(新東面良才里)에서 우시장(牛市場)신설축하로각희대회를 개최하게되엿는데 임이 지난두회의결승은 못이낫다는바 우승의영관은 광주군(廣州郡)주면 신사리(新沙里) 리삼용(李三用)이가차지하엿다하며오는구일에도 일등에소를 줄터임으로 일반용사는 만히와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市場新設코

祝賀脚戲會, 시흥군신동면에서 去陰六月二十九日부터

▶ 1931.11.2(4)

讀者優待割引

【始興】 순연흥행을하는안송국마연예단(安松曲馬演藝團)이 영등포에 와서영등포역전에 립시극장을 설시하고 지난삼십일 무터오일간 주야로 륙나와무용 등을흥행한다는데 특별히 본보 시흥지국 독자에한하야 입장료 삼십전을 이십전으로 할인한다는바할인권은 본보광고란에 발행하엿다한다

讀者優待割引

去三十日부터 영등포에서

▶ 1931.11.13(7)

同情金品募集 始興警察이 禁止

【始興】 시외로량진(市外鷺梁津) 유흥강습소(遊興講習所)주최와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 후원으로로량진일대를강습소아동들이 가가호호를 력방하고만주재란민(滿洲災難民)의 동정금품을 것는다는것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보도를본 일반인사는 만주재란민을 동정하고십흐나 수취(受取)할것을 몰나심려를 마지안튼중 유흥강습소에서 력방하야 모집한다함에 일반은 자못기다리고 잇섯스며 일방주최자와 후원칙에서는 모집할방책에대하야만반의준비를 다하고잇든중 돌연 지난륙일밤에 당지경찰은 금지를명하엿나 리유는 경긔도 경찰부명령이라는것뿐이며 그진의(眞意)를알 수업스나 일반의 기대가만튼동정금모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되니 실로 유감이나재만동포들위하야 동정의 눈물을가티흘니는분은 금품을 경칭에잇는만주조란동포문제협의회(滿洲遭難同胞協議會)로보내거나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을 유식히는것이좃켓다한다

同情金品募集

始興 경찰이 禁止

▶ 1932.1.22(6)

洞民의 努力으로 講習所를 建築

◇신흥의 공업도시 영등포에

【始興】 경부선영등포(永登浦) 관공서은순전한새로발흥되는 공장도시로서 일반시민의 대부분이 공장분동인 관계로그생활이 곤경에빠져있슴것이야 일반이 미리다알것이며 더욱이교육기관으로서는 다만 공립보통학교(公普校) 한곳과 야소교회의 경영인수개의 강습소가 잇스나 그로서는 도저히 수다한아동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나 소위시내 유력자라는 사람들은 그에대한 하등의 관심도업섬으로 이를 원망함을 마지아니하며 영등포읍(永登浦邑)에서도 가장 빈촌인 당산리(堂山里)에잇는 김종혁(金鍾赫) 리만수(李萬壽) 씨외 수씨의발긔로 그동리에서삼백여원의 의연금과 더가지고 약 일백오십명을 수용할만한 교사를건축하고 지난십이월부터 개교하엿다는데 벌서 학생수효가 일백이십여명이나 되며 일체비용은 그동리에서 부담하기로하고 교원은 차인섭(車仁燮)씨외 수씨가의무로가르치기로하엿다 한다

洞民의 努力으로

講習所를 建築, 신흥의 공업도시 영등포에

▶ 1932.12.1(6)

垈地拂下問題로 復興村輿論沸騰

村民은拂下反對對策講究 府當局의處理를注目

【始興】 시흥군독면본동리복흥촌(始興郡北面本洞里復興村)이란면 누구나다 하방일우(下坊一隅) 에지내지못하는촌락들것시만한강교(漢江橋)를건느기만하면거기가 복흥촌이다 물자와가티 죽엇다다시 사러난사람들인데대정 십사년지금으로 부터 팔년전 을유년정마년에 한강변리기앞의촌락(二村洞)에서살든주민으로서 불난리를 맛나서면주먹만한 고생키나온사람들이니 당시경성부(京城府)에서는이를구제코저 복흥촌대지(復興村垈地)를만여명이나매수하야이촌동수재민(京災民)에게매호당십오평식 분여(分與)하야주며매평에 오전식 대지료(垈地料)를 바더왔다 지금으로서 벌써세년(世稔)와 된이주민이 사는터이나 대지로의 중수가 일년에사오월밧게 것치지안니하야 경성부에서는 년년히 중수하는터 물치가 앞서서 복흥촌대지를 개인에게 불하(拂下)할다는 소문이 생겨 최근은 앙분 분다복사람아지엇서서 사벌여전 일전주민들은 이것이사실이 아닐가하야 전전긍긍하이다 전긔와것치 경성부(京城府)에서 만일복흥촌대지(復興村垈地)를개인에게 불하한다면 복흥촌 전주민의사활문제에 당할으로서 주민들도 여러당한대책을 강구할는 불분이나 직접당국자인 시흥군북면(始興郡北面)으로보아서는 이상과같은중대문제가면내에발생되엿다 면주민의면자신으로서 선후책을강구하야주민의안도를 줄것이당연할일이다 그러나대지료(垈地料)를중성부에서중수하는것이라고하야반환적해도를취하야 조금도관심하는바가 업슴에따라 일반에비난도잇다 이를 응당하야 주인들도 그대책으로 대지료를 불하(垈地料)를 중성할 하야 금후각개인에게 불하(拂下)되도록노력하자는 소래가주민사이에자못높다고한다

垈地拂下問題로

復興村 輿論沸騰

▶ 1933.3.15(4)

문맹퇴치위해

여자 야학강좌

文盲退治爲하야

女子夜學開講

유치원선생들이헌신적으로

永登浦婦女의福音

영등포 흥화유치원(興化幼稚園)에서는일반의「아만둔이」가 많은 그런데 동야학은 동유치원버진 장부인과 학교에가지못한 녀자들을위하야 이달십삼일부터 매일 저녁 녀자야학을 개최하리라는데 그시간은오후칠사반부터 십시반까지며 과목은 『朝鮮語 算術 國語 家庭衛生』 등이라한다 청(慶振隆)씨와 보모김은해(金恩海)씨의 희생적로력으로영구히지지하야 나갈것이라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양씨에대한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 1935.2.23

永登浦에大火災

貧村一部落을全燒

水利不便으로七棟八戶全滅

六十罹災者街頭彷徨

(수원특신) 어성이엄오후한시십분경에시외시흥군영등포읍산리(新興洞水營洞)(望山里)리봉촌의 잠촌근처에서 불이일어나시간에 초가로이은 동가를태워버리고 마을에이른 석봉에붙리여 이웃집에옮겨붙기시작하야 전동리가모다불에타는데 급보를 접하고 소관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신원사법계주임이하 전서원은 불론 마을 군부각지주재소장회의 영은관계로 소방대의 출동하는 경관전체와 영등포소방조가 출동하야스나 오래된이가 불붙는데요 더구나현장에는우물이 단 하나밖에없스나 불속에 들어가 때문에 그우물을 사용치못하고 멀리 조선피혁회사(朝鮮皮革會社)의 우물을 사용하야 물이 부족하얏기때문에 신통한 효과를 못보았다 마츰내경성시내에서 소방대의응원까지 엇섯스나 역시물밧불속으로 조흔성적을 못보이고 륙동 팔호를전소식히고 반신 소이호를 내인다음오후 세시반에야 겨우 화세를잡앗는데 이로인하야 한부락이 거의전멸되는 참상에 이르렀다

영등포에 대화재

▶ 1935.3.1 夕(5)

南陽舞臺公演

本報讀者半額

【永登浦】극단남양극대(南陽劇團)가남선각지를순회하야 절대의 환영을받고 영등포에 드러온것을 긔회로 본사영등포지국에서는 흥행긔간인 이십일일부터 오일간 본보애독자 우대권을발행하야 대인 삼십전을십오전, 소인이십전을십전으로 각각할인하기로 되엿는데 동극단은 평북창성군 대유동에서 신진남녀배우삼십명으로 조직된 극단으로 수만흥미중에게 만흡환 회를 주리라고 긔대된다고한다

南陽舞臺公演

去月二十八日부터 五日間 永登浦에서, 本社支局 優待券發行

▶ 1935.12.17夕(5)

本報讀者優待

「洪吉童傳」上映

永登浦演藝館서

【永登浦】조선영화로서 초유의 호화판이라고 학마한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십륙、칠일간영등포연예관에서 상영하기로된것 을긔회로 본보애독자에게는 특별히 계상오십전을 삼십전으로 각각 할인우대키로 되엿는데 홍길동전은 조선에잇서서는 물론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편으로 이것을 영화화하기까지에는 마흔경비가 들엇스며 력사가 옹백남(卞白南)씨의 고심력작으로 오륙여명의노련한남녀배우들의 익숙한 기술과 영화예술의 정수(精髓)로서 되엿인만치 누구나한번감상할마한 가치가 잇다고한다

本報讀者優待

「洪吉童傳」上映

▶ 1936.1.11 夕(2)

永登浦赤色事件
仁川에도 關連?

永登浦赤色事件

仁川에도 關連?

▶ 1936.3.6 夕(2)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 今日送局
永登浦署高等係에서 檢擧
前後三個月만에 取調段落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 今日送局

永登浦署 高等係에서 檢擧 이양재외 九名

東紡永登浦工場

近日中工事着手

벌서부터 人夫供給難

【永登浦】수륙의교통이 지극히 편리할뿐아니라 지하수가 풍부한것과 수질이 량호한것등으로 공장지대로서의 모든조건이 구비하야 현재 조선피혁(朝鮮皮革)경성방직(京城紡織)사보로 기린등 량대주공장 룡산공작(龍山工作)창화(昌和)조선(朝鮮)등 량연색공장 기타대소기업공장이 절비하게 드려안젓스며 목하공사중에 잇는 종연방적(鐘淵紡績)회사등 웅장한 굴뚝이 벌려서잇는 영등포에 또다시동양방적(東洋紡績)회사가 진출코저왕년에 기지이만오천여평을 매수하고 기초공사를 끗낸후 이래 건축공사의 준비중이엿스는데이번에 대림조(大林組)와 청부계약을 맺고 금년내로 준공식히고저 근일중건축공사에 착수할터이라는데 솔공사비는 약일백오십만원 정도이며 이로서영등포는 벌서부터 로동자의 공급부족으로 기업가 청부업자들은 큰 두통거리로 되여잇스며 반면에 상공업자들의 은성은들로 놀날마저 번창하야 폭발적경긔를 보이고잇다

自轉車竊盜

【永登浦】지난십일일 오후여섯시경에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전대(田代)순사가 부내상도정(上道町)부근을 순찰하는중 행동이수상한 소년이 자전거를타고 쏜살가리다러나는것을 붙들어검문한바 그소년은 본적을 려주군주내면 상리(驪州郡州內面上里)삼백삼십사번지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떠다니는 원래복(元奏福)소년이 란자로서 작년십이월중에 절도죄로 귀소유예처분을 받은일이 잇서는데 지난달일오후세시경에 려비가 궁하야 부내방대문통에 정목 경성방직회사 정문압헤세워노앗든 시내계동정(桂洞町)일백이십팔번지 김재수(金在洙)의 소유 자전거시가삼십원 짜리를 훔처타고 다라난것을 자백하엿음으로 취조가끗나 불일간송국할모양이라는데 일반은 자전거 장물쇠를 잘잡거 피해가업도록 주의하는것이 조타고한다

동방영등포 공장

근일중 공사착수

▶ 1936.5.28 朝(3)

永登浦에선 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盛況

鼎言, 灌雪과 하모니카團도 演

本社支局의 主催로

【永登浦】본사영등포지국주최의 시민위안야담회는 예정과가티 십륙일 오후팔시부터 영등포극장에서 개최되엿섯는데 영등포의 처음이는 모임인만큼 뿐만 아니라 중외일보사 신성영 申

永登浦에선 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 盛況

▶ 1936.7.10 朝(2)

永登浦、淸凉里、麻浦의 市區劃正에 着手

모다工業地帶로서 京城府當局이 代行

大地主의 投機盛行이 念慮

행정구역을 종래의 사배로확장하야 대경성이되기는 금년봄이었스나 실제로 대경성의 규모를형성하기까지의 제일보는 명년부터로 사업은 전반이 도록에관한것이다 첫재 대경성건설사업의목표는 근년급격히 발전하고잇는 신편입구에대한 시설이 주요한것인데 우선명년도에착수할것은 도로망의계획보다는 시구획정(市區劃正)을 첫착수로하게될것으로 그목표는 영등포(永登浦)와청량리(淸凉里)와마포(麻浦)의 삼개소로 작금에 그 예비조사를 하고잇다 전기삼개소의 구역범위가아직명확치는안흔모양이나대개 그범위도장당히 늬래 잡혀질모양이다 즉전기삼개소는 대경성의 배양지로 대개공장지대로서 급격한 발전을 볼수임으로 청량리방면은 중앙선(中央線)과 경춘선(京春線)의 종점정거장도 설치될것임으로더욱 시급히 시구획정이 필요한 모양이고 영등포도 역시공장지대로 대단한 발전을 보고잇고 마포방면도 거이 시가지를 형성하고잇는터이어서 금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미리 시가지의 구획을 만들어두어야 되다는것이다 그실시에는 설계비와 기타지도의관한 비용은 부당국에서 지출하고 그여의 일반 비용은 일반지주들이보담하여야 되는것인데 당초는 지주들로하여금 구획정리조합을 조직케하야 그조합에서 공사를하게될것이나 편의상부에서 대행케될모양인데 경성부에서는 비용으로 지주들이 부담하여야할것은 매평에이원 평균으로보고 잇다 이가리하야 시구획정을하게되다면 소지주들은 비용때문에 땅을팔지아흘수 잇게될모양으로 결국은 시구획정의 결과는대지주들의토지투기가성행할모양이다

영등포 청량리 마포

시구획정에 착수

▶ 1938.2.13

영등포정민

성미를 모아 헌금

誠米를 모아 獻金

永登浦町民의 熱誠

금수속을 하였다한다

【永登浦】부내 도림정(道林町) 제이구 중대리장하(李章夏)씨수 최로금번 출정군인(出征軍人)을 위문하기위하야 작년십이월십오일부터 지난일월이십사일까지사십일간 정내일백삼십일호(百三十一戶)의 부어케다 주머니를비치해노코 조석때마다 성미(誠米)를 모하오든것을 수일전에전부수합하야 대금(代金)으로 바꾸어보경과 사십일원팔십신에달함으로 곳소관영등포경찰서에헌

永登浦에서 出不出漫談會

本報支局後援으로

【永登浦】만담계(漫談界)의 인기자 신불출(申不出)씨의 만담대회(漫談大會)는 오는십사일밤 영등포연예관(演藝館)에서 세원당약국(世元堂藥局)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永登浦支局)후원하에 개최될터인데 당지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희귀한만큼 벌써부터 비상한 인기를 집중하고잇는바 당야의 입장료는 계상(階上) 계하(階下)의 구별이업시 오십전식으로 예정되엿스나 특히 본보독자에게는 십전식 할인을 하기로되엿다

영등포에서

신불출 만담회

▶ 1938.6.21 朝(3)

少年提琴家白高山君
永登浦서 演奏會
廿三、四兩日演藝舘에서

本局 報後 支援

〔永登浦〕금번 조선이나흔 천재소년 백고산형제(白高山兄弟)의 제금연주회(提琴演奏會)가 오는이십삼、이십사양일간 영등포연예관(演藝舘)에서 백고산연주후원회(白高山演奏後援會)주최와 조선일보 영등포지국 후원하에 개최키로되엿다 이미 세상에서 널리아는바와가티 백고산군은 당년칠세의 소년이요 현되는백해제(白海帝)군은 열두살밧게아니되는터이나 『바이올린』을 들면은 제대가(諸大家)도 땀을흘리는 『지고이네롸이젠』과가튼 난곡(難曲)을 무난히 연주하야 일세를 놀래인 신동(神童) 들로써 금번특별히 영등포에서 그들의 귀여운 연주회를 뜻게된 것은 다시 업는 기회일것이다 그리고 당야에는 『고리라의 습래(襲來)』라는모험과 『스릴』이 가득한 맹수영화(猛獸映畫)도상영하게되엿는바 입장료는 계상계하오십전잔일이나 본보독자에게는 특히삼십전으로 할인하게되엿다 (사진은 백고산군)

少年提琴家 白高山君

永登浦서 演奏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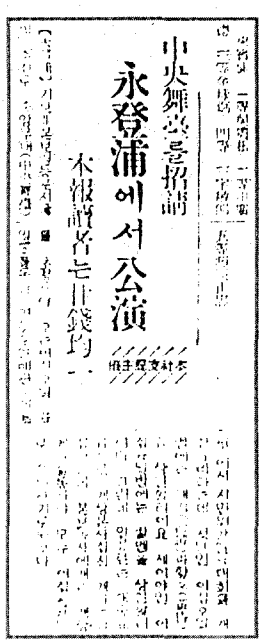
▶ 1938.8.3 朝(3)

獨占이윤者로 過重한入場料金

永登浦演藝館의 事情

독점을 기회로 과중한 입장요금

▶ 1938.10.25 朝(3)



中央舞臺를 招請

永登浦에서 公演. 本社支局主催

▶ 1939.12.3 朝(3)

六六個所 千餘名에

國語講習會 開催

始興郡 청년단체주최

六六個所千餘名에
國語講習會開催
始興郡青年團體主催

【水原電】시흥군 [illegible]에 있는 [illegible]하여 국어강습회를 [illegible]하고 각청년단체에서는 작년겨울에도 훈요과를보앗섯는데 금년겨울에 군내육십륙개소에서 일천여명의 도여서 [illegible]하시기를 [illegible]하여군 국어를해득치못하는다수이게 대[illegible]내[illegible]삼사개소일천오백명의 단원에게 대하여 시흥읍부터 약 삼개월내지사개월간예정으로 일제히 국어강습회를개최하여다그런데 교과서로는 국어교본을배부하였고 강사는 당원중의임원 및화교직원의 지도미에서 차기로되엇스며 강습회에드는 일절 비용은 단원들이 가지나눈여동근로작업에의한 수입금으로충당하기로하고 작년마찬지 본회 으로부터 원조를 받지아니하는 여다

▶ 1940.2.20

永登浦金組窓口에서
남의돈가지고逃避

【永登浦支局電話】이십일 오후 한시이십분경에 영등포정 영등포금융조합에서는 아양 조선운송주식회사출장소 시경래(柴卿來)에게 지불할돈 일천구백팔십일원구십상전을 지불하라함때에 마침 그금융조합 창구(窓口)에 잇던 딴사람이 자기가 시경래인체하고 그돈을 바더가지고종적을 감추엇이 나중에야 탄로되엇스나 그래도 벌써 때가느서서 어대로갓는지 알수업게되여다 그런데 그사람은 힘두루매기에 회고무신은 허술하게차고 수염을 압뜨하여노코도 차자아갓것에 의심을가지고 유적유진을 수색한결과 일천구백여원의돈과 기타증거물이나와 검거하게되엇인데 범행동기는 그리 사나이라한다 이사실을안영등포경찰서에서는 곳 사방으로 그범인의 행방을 찾는중이나아직도 엄수업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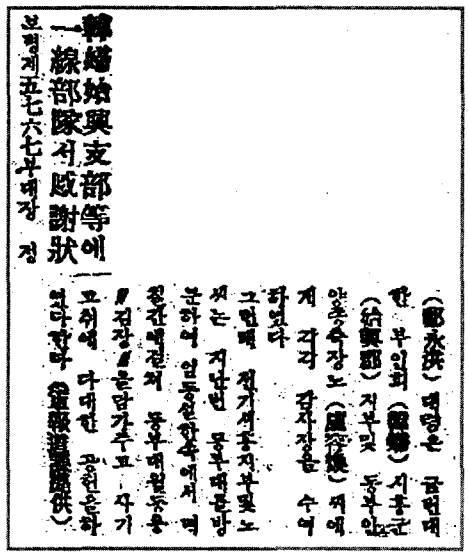
犯人은米穀商
犯行即後逮捕

【永登浦支局電話】범인은 영등포정 이백구십팔번지 미곡시란상 유성우(柳聖佑)로 판명되어 동오후여섯시 자기집에숨어잇는것을 검거하여다 검거의 단서는 동일 유성우가 이백오십원을 금융조합에서 대출하고 날아침 유성우도 이백오십원을 대출하려고 금융조합에 갓다가 일천구백여원의 대금이 탐이나서 이돈을속이고 나서서 바다가저갓것이라한다

영등포금조 창구에서

남의돈 가지고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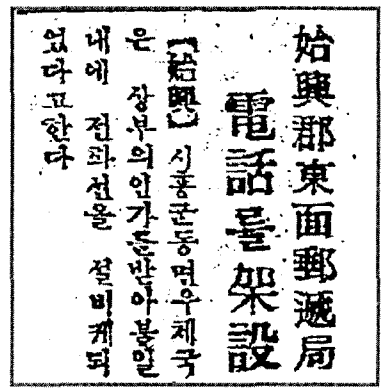
▶ 1952.12.16 조간 2(5)


始興支部等에
一線部隊서感謝狀
(郵永洪) 대령은 금번대
한 부인회 (始興郡) 시흥군
(始興郡) 지부및 동부인
안동숙장노 (盧炳煥) 씨에
게 각각 감사장을 수여
하였다
그런데 전기세종지부및노
씨는 지난번 동부대문방
문하여 일동을한숙에서 여
흥간에걸쳐 동부대원동을
『감장』을담가주고 사기
고취에 다대한 공헌을하
였다한다 (金敬道記者提供)
보병제五七六七부대장 정

대한부인회 시흥 지부등에

일선부대서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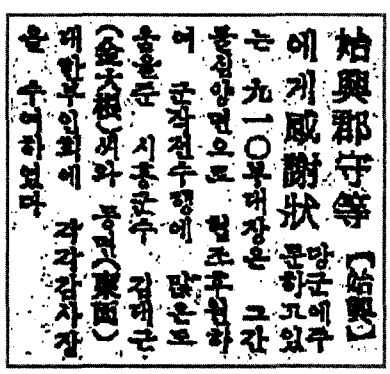
▶ 1953.3.8 조간 2(8)


始興郡東面郵遞局
電話를架設
【始興】시흥군동면우체국
은 상부의인가를받아불일
내에 전화선을 설비케되
었다고한다

시흥군 동면 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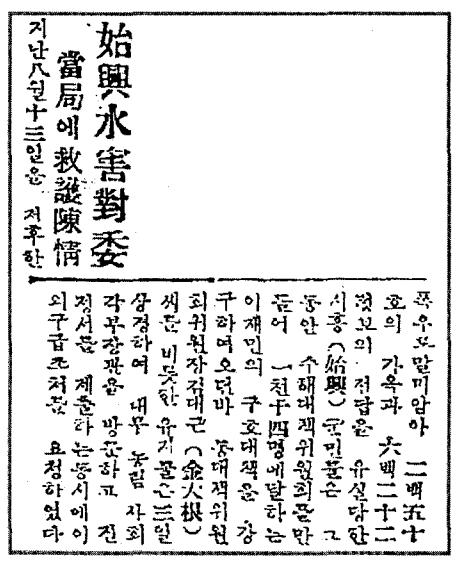
전화를 가설

▶ 1953.4.3 조간 2(6)


始興郡守等에게感謝狀
【始興】당군에주
둔하고있
는 九一〇부대장은 그간
불심양면으로 협조후원하
여 군작전수행에 많은도
움을준 시흥군수 김대근
(金大根)씨와 동면(東面)
대한부인회에 각각감사장
을 수여하였다

시흥군수등에게 감사장

▶ 1953.9.7 조간 2(7)


始興水害對委
當局에救護陳情
지난八월十三일을 전후한
폭우로말미암아 二백五十
호의 가옥과 六백二十二
헥타의 전답을 유실당한
시흥(始興)군민들은 그
동안 수해대책위원회를반
들어 一천千四명에달하는
이재민의 구호대책을 강
구하여오던바 동대책위원
회위원장김대근(金大根)
씨는 비롯한 유지들은三일
상경하여 내무 농림 사회
각부장관을 방문하고 전
정서를 제출하는동시에이
외구급조처를 요청하였다

시흥수해대위

당국에 구호진정

▶ 1954.3.29 조간 3(7)

砲彈六箱子를盜難
始興美軍貯彈場서
수사망국에서 二十六일하오 발견진바에의하면 지난五일 하오十시경부터 六일 상오十시 사이에 시흥(始興)군 소재 미제四十六병기대 저탄장에서포탄六상자(五百四十四발)를 도난당한 해괴한사건이 발생하여 미제五十一병력 수사본부에서 시경에 수사를 의뢰하여왔다 한다

시흥미군 저탄장서 포탄 6상자를 도난

▶ 1955.3.3 조간 4(9)

年次大會를開催
自由黨始興郡黨

【安養】자유당 시흥군당부에서는 지난二十七일 오후더 시흥군청 회의실에서 제 회 이사선(李奭善)회원총회가 (後正善) 시흥군수이하 (李鍾鶴) 제자를 비롯하여 九十여명의 자유당회원이 출석하여 성대히 연차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선출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委員長 李奭善 副委員長 張炳根 副金弘奎

자유당 시흥군당 연차대회를 개최

▶ 1955.5.7 조간 4(8)

始興郡農民會改編

【安養】시흥군농민회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四일 정오부터 시흥군청회의실에서 중앙수습대책위원 오명관(吳命燒)씨를 비롯하여 다수내빈과대의원二十八명이 모인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다음과같이임원을선정하였다 ▲會長 金弘奎 ▲副會長 金東浩 成漢澄 ▲常任執行委員 成洛瑢 外十名

시흥군 농민회 개편

▶ 1957.2.9 조간 2(6)

三十二名이負傷

始興附近에서「뻐스」顚覆

【永登浦】승객을 만재한 「뻐스」가 시골길을 질주하다가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가드수에 충돌되어 三十二명의 중경상자를 낸 사건이 지난 二월六일하오 五시四十분경 서재운(徐在運=四一)씨가 운전하던 동진(東進)여객 소속의 시외「뻐스」(경기 영 一五六九호)는 승객을 만재한 수원(水原)을 출발 서울로 달리던중 시흥군 동면 독산리(始興郡 東面 獨山里=始興에서 八百米地點) 앞노상에 이르렀을 때 돌연 오른쪽앞바퀴가 떨어져달아나는 바람에 옆에있던 가드수(街路樹)를 들이받아 三十二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켰다고하는데 이날의 부상자들은 모두 영등포시립(市立)병원에 운반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바 다행이도 사망자는 없었다는것으로서 부상당한승객들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重傷者十二名(金治二週以上)

▲金崇德(二五=서울東大門區淸凉里一洞山 二號六號) ▲韓殷萬(二二=京畿道始興郡東面 始興里一〇一) ▲李用雀(五〇=서울中區旭林洞二七〇) ▲林炳鶴(一九=서울東大門區綜合洞二五四) ▲具滋允(二〇=京畿道始興郡東面始興里九五) ▲金商默(四七=仁川市昌英洞一六五) ▲鄭鎭(水原)을 출발 서울로 향하던 四六=京畿道華城郡日旺面 타광리) ▲鄭在萬(三七=女=서울中區興仁洞二街八五) ▲宋英子(一九=女車掌=서울永登浦區新吉洞九六의八) ▲柳相煒(二二=女=서울永登浦區文來洞一統) ▲李貞順(三七=女=서울長安區中興校敎員) 輕傷者(二一名) ▲徐在雲(四九=運轉手=서울永登浦洞四二〇) 外二〇名

시흥부근에서 버스 전복 32명 부상

▶ 1957.3.5 석간 3(8)

뻐스가 또 半燒

永登浦始興間서 重傷者四名.

三일하오六시경 영등포와 시흥(始興) 사이에있는 마장교(馬場橋) 남방 一백「에터」지점에서는 수원(水原)서 서울쪽으로 질주하다가 휘발유 부족으로 엄주있던 서울승합(二호「뻐스」(서울영一一三五)에서 불이일어나 四명이 중상을입고 八명은 경상을입었다하며 몽「뻐스」는 반소되었다한다

그런데 발화원인은 운전수 김일재(金一載=三五)씨가 휘발유 五「까론」을 구하여다가 「뻐스」에다주유하던순간 「엔진」과연로 휘발유에인화된것이라하며 중상자四명은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한다

교있는 十五사단장 박기병(朴琦丙) 소장과 정년사업가 강기다(康琦波)씨는 서로 협력하여 전주교 구제위원회에 정다하여 다량의 양곡과분유를 받아가지고 약一주일간에걸쳐 산간벽지를찾아 절량농가 一만四천三백여세대에 일일이 분배하였다고한다

그런데 전기박소장과 강씨는 지난번 「크리스마스」때에도 의류와양곡을분배한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복지구 절량농가의 구제사업의 교시로서 주민들의 감사를받고있다

버스가 또 반소

영등포 시흥간서 중상자 4명

▶ 1957.5.14 석간 3(6)

찔、언덕에서轉落

印財務長官 始興서負傷

十二일 낮시간 갔던 인
(印)재무장관이 부상
하는중 이날밤생한 두건
의 교통사고가 치산역에
보고되어왔다

▲十二일오후세시경 경
기도 시흥경찰관지서앞으
로부터 남쪽약一백「미터」되는
윤항대 지점에서 서울
단기단

인재무부장관스유「찔」차는 쏘이구「메다」되는남
미리지에서 전복하여 인
재무부장관은 안면에 전
치二주인상을 하는 것과상을
입었다는데 서울로향하던
육남(陸南)버스와 교차
하다가 발생한사고라 한다

▲十二일 오후다섯시반
경경기도고천군 소산(蘇
山)국민학교근처에는
미군소속 밤차가 주차하
여 신원미상의미군한명이
즉사하고 一명은중상을입
었다 한다

찔 언덕에서 전락

印泰植재무장관 시흥서 부상

▶ 1957.9.14 석간 3(7)

소금배 침몰

始興앞바다서

十一일밤 여덟시반경
기도시흥군군자면 옥조리
(始興郡君子面玉釣里)서
방 백「에머」해상에서는
소금배六「톤」을싣고 인
천으로가던 발동선 북조
호(北鳥號)가 심한폭랑
을만나 침몰하였다 현지
경찰조사에의하면 사고원
인은 아직밝혀지고있지않
으나 一백십一만한 상당
의피해라고한다

소금배 침몰

시흥앞바다서

▶ 1957.10.17 석간 1(5)

選學法分離不當

野側、始興會談聲明에反撥

民議員 參議員選擧法案을
分離提案하자 同時通過하
도록한다는 忠起臨 田炳玉
强相臨三指導者의 合同
事項은 各派議員들에게적
지않은 反撥을일으켰다
兩法案을 分離提案한다는
原則에對한議員들의 反撥
은自然히協商結果 보이두어
진折衷案中 몇가지問題에
對해서도 不滿을表明하고
있어 十五日밤의始興會談
結果에依한 國會議員選擧法案

▶ 1957.10.19 석간 3(2)

始興郡앞바다서
소금배가 顚覆

十七일 하오六시十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始興郡東面正往里)앞바다에서 (鳥耳)도 앞바다에서 한엽(韓燁)씨의 식회사소속 금강호가 폭풍우로 조난을당하여 선원 김석선(金碩善)씨외 一명이 사망 一명은 행방불명이되고 동선박에지재하였던 신일영 五톤五十가마가 수장되어 八十三만八천五백단의 미곡을 입었다고한다 현지경찰에서는 행방불명된 선원의 시체를 인양작업중에있다고한다

시흥군 앞바다서 소금배가 전복

▶ 1957.10.27 석간 3(1)

電話線千餘米
始興에서盜難

二十五일 새벽에서시경 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東面始興里)에 가설된 제신부외 一三四호전주에서전화선一천八十米(에더)(신가五만四천원)가 절단도난당한것이 발견되었다 현지경찰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에있다

전화선 천여미터 시흥에서 도난

▶ 1958.4.27 석간 1(7)

方針이라고하고 自由黨에서는 選擧公約이라고 數的說明이없으니 空手 라고 같은애는쓰고 있는 망하는 「公約三章」은 黨과政府가 合意보고 與黨과政府가 合意보고 廿五日上午 同時에發表한것。 현데 그公約三章은 自由黨當面政策四大綱領과 六十四個項目의 方針中에는없는것。 그런데 野黨約束보다 十分之一이라도 實行性이 있다고 믿어지는與黨公約이라 歡心이 있는것도 事實인데 우리 黨員들은 五百餘個所의 黨員 月給을 倍額引上하는데 三百個所이나 所要된다고。 그두가지만 合해도 無

어떻게 마련한다는 計劃으로써 그德?을보려 來漁夫之利란 挾攻中에 自信滿滿하다고。 이래서 選擧의豫測은 解釋하기 이겠지。

◇…二十六日아침 民主黨 自由黨에와서 수리 慶南 某邑選擧區의 李氏는 公薦」이 있는것이 無效 八個地區나된다고하면서 的으로 援助하고있으니 이런수가있느냐고抗議。 그래서 그理由를 들으니 野黨에서 某公薦者를 인지않고 當薦者를 當薦者를 人士는 기의가 反道黨 委員除名을이라고 宗譜 까지說明。 眞假는 如何는 그런것한 얘기。

시흥군

출마자 李英燮씨 기소

▶ 1958.10.14 석간 3(10)

始興等地서
强盜二件

경찰보고에의하면 十一일 밤 아홉시경 대문같이하여 경기도시흥에서와 경상북도영일 에서는 각기 다음과같은 강도사건이발생하였다고한다

▲시흥군 신풍면 금당리(始興郡新豊面金堂里) 五八〇번지에사는 최복경(崔福璟=二一)의一명은 처가집인 전기 동리로 가던 서울시노량진동거주 김복성 (金福成=四一) 씨를 발견하자 「김찬관인데 어째서 밤늦게돌행하느냐」하고 시비를걸고 또한 구타하다유친금二천여원을 강탈도주했다가 十二일 경찰에진기되었으며 영일군구룡포읍 중흥리(興日郡九龍浦邑中興里) 노상에서는 전기구룡포읍에사는 정무용(二七) 씨를 무조건구타 한다음 시계한개를강탈도주한 노상강도가 발생하였는데 十二일 경찰에서는 김완구(二〇)라는 범인을 체포하였다고한다

시흥등지서 강도 2건

▶ 1959.9.14 석간 3(10)

始興郡에强盜

十三일새벽한시경 경기도 시흥군서면노온사리(始興郡西面老溫寺里二〇七)에 약상 정순자(鄭淳化)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한 뒤 창문유리를 부수고 침입 저씨를 위협한후 각종약품十五점과 현금二만원을 강탈도주하였다

시흥군에 강도

▶ 1959.5.8 조간 1(3)

領袖會談을 論議

無所屬議員들 始興에서會合

院內 無所屬俱樂部의 議員들은 七日下午 始興에 있는 張澤相議員別莊에서 정심을같이하면서 國防國會對策등을 協議하였다 張議員은 이모임에서 「與野協商의 成敗間에 無所屬議員이取할수있는 몇가지問題를 檢討했다」고말했다 그는 그方法의 하나로서 李起鵬 趙炳玉 張澤相氏등 三者會談등도 論議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날會議에는 梁一東 李範奭 朴炳培 尹在根등네議員밖에는 參席하지않았다

영수회담을 논의

무소속 의원들 시흥에서 회합

▶ 1959.9.21 석간 3(8)

全員에 無嫌疑

始興兵器隊서 彈丸爆發事件

二十一일상오 서울지방검찰청 황진영(黃鎭永)검사는 경기도시흥군(始興郡)소재三〇六병기대대의 탄환폭발사건의 수사를종결하고 경찰이 저질렀던 「일반이적죄의」에 대하여 전원에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황검사는 이날 八명그의 자항 안승희(安鎭禧)二〇 강순태(姜淳泰)二七 김동순(金東淳)二三 三명의 고문상들에 한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명을 적용구속기소했다

◎ 總資産 80餘億圓整 (資本金社10億社)
海上保險 一切取扱
海上保險 共同事務所
TEL ㊀1097 ㊁4106-8

시흥 병기대서 탄환 폭발사고

전원에 무혐의

▶ 1959.11.11 석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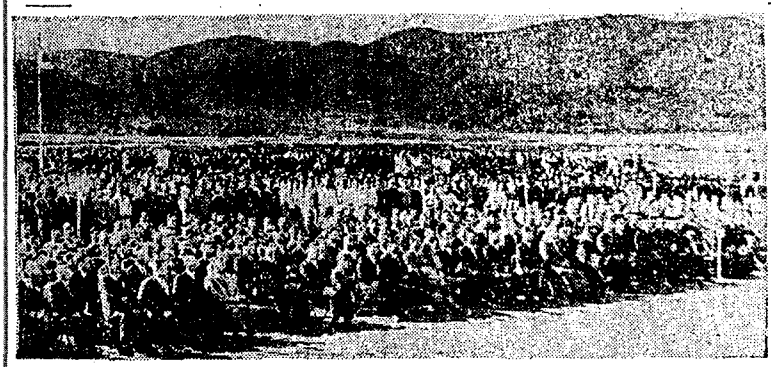
헐벗은 山野를 기름지게

砂防事業促進 全國大會盛況

始興現地서 五年計劃첫發足

明春까진 10萬헥터

總砂防工事面積은 671헥터



사진上은 이날의 대회광장 下는「홀」에모두 「미국」의 모양보존회의 명예회원증을 받는 이대통령

이날 대회는 주인혜에 이어 이(李) 농림부장관의 「거국적인 국민운동」 석자 인등을 대표 하여 이 진다윤 다하겠다」는 이데올로기에게 「삼천리와 의경기도지사의 선서가있 이어 우탁산림계와 유공 한 모창장수여와 구한경 민장기근속산림관계자에대

계획도처장「도이안」씨에 육사가있은다음 이대통령 소부터「다같이 합심하 이강산을 보호 육성하고 이강산을 더욱 빛내도록 하자」는 요지의 유시가 있었고 「윤을」 농림부장 「앙보존위원회 부터 명예회원증이 이대통령에게 수여되었으며 만지상장으로 十시五十분 대회는 끝마쳤다 대회가 끝난다음 이대통령 을비롯하여 참석자일동은 대회장 뒤산에마련된 사방 공사현장으로 올라가서 사방 공사를 참관 마치오도 하 같이 시까지 사방공사에다 합쳐 오늘날의우리나라의 임야실태는 총면적 六백 七十一만六十四「헥터」중 아직도 사방공사를요하는 면적이 六十三만六천五백 五十九「헥터」나되며 사 방사업五개년계획에 의하 여 연차적으로 그공사를 완료하기위하여 우선급년 가운파 명년봄까지 수선 十만「헥터」의 사방공사 를 실시하기로되었다

三지경 서울발 특교 (水 (福) 행 대국교 연차내에 서 경솔 (朱甲洙)三八선이북 삽 (朱甲洙)三八선이북 삽 씨는 서울에서 대비 一백二十가마분만 대출 一백四十九만톤을 도난당하 였다고 경찰에신고했다

헐벗은산야를기름지게

시흥 현지서 5년 계획 첫 발족
사방사업 촉진회 전국대회 성황

▶ 1960.10.28 조간 4(3)

翼一警隊에 自豫防生犯罪學興始

【始興】시흥군동면(東面)내에 거주하는 중·고교생三十여명은 정국의 혼란을틈타 방호하는 각종범죄를 방지하고자 지난七월하순경부터 자경단(自警團)을조직 야경(夜警)을하고있다 동자경단은 김영식(金英植=二〇)군을 주동으로 동면지서 조안기(趙安祀=三二)주임을 단장으로하고있으며 단원三十四명이 무반으로나누어 매일 지서순경과함께 야경을 돌고있어 지방치안화보에 도움주고있어 주민들의화제가되고있다

시흥학생자경대 범죄예방에 일익

▶ 1960.10.29 조간 4(3)

始興서蹴球大會

【始興】시흥군동면(東面)학생회에서는 제二공화국 수립을 경축하고 아울러 「유엔」의날을 기념하여 지난二十四일 시흥국민교 교정에서 동면내 동·리 그리고 각기관대항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안양 「팀」이 우승하였고 시흥「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시흥서 축구대회

▶ 1961.1.18 조간 4(5)

「엘」氏等에感謝狀

始興敎育監이

【始興】十五일상오十시十五분부터 시흥(始興)고등공민학교에서는 시흥서장 시흥교육감으로부터 시흥주둔 미五八탄약부대근무 「로버트·W·엘리오드」씨와 「파크」씨에대한 감사장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동감사장은 전기양씨가 전기시흥고등공민학교 개축공사에있어 륜심양면으로 많은협조를한데대한 것이라한다

시흥교육감이

「엘리오드」씨등에 감사장

▶ 1961.3.14 조간 4(8)

情死企圖로判明

始興女人自殺未遂

【始興】속보=九일상오에있은 시흥군동면시흥리(東面始興里)소재「탑골」뒷산에 인자살미수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에서는 十일상오八시경 여인이발견된장소에서 얼마멀어지지않은곳에서 (남자변사체를 발견하고조사한결과 서울모대학교법과 三학년에적을둔 노대환(盧大煥=二二)군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조사한결과 노군은 전날 발견된 자살미수자 박춘자(朴春子=二二)양과약 三년전부터 사귀어 왔으나 부모들의 반대로 결혼을못하게됨을 비관하고 동이서 정사를 기도 극약을 먹었던것으로 밝혀졌다 박양은 음독직후 발견되어 가료를받고있는데 소생된가망이 많다한다에

시흥여인 자살 미수 정사기도로 판명

▶ 1961.5.3 조간 4(9)

新人歌謠콩클大會
始興支局主催로

【始興】三、四양일간 시흥군동면(東面)에있는「시흥문화관」에서는 조선일보시흥지국주최로 제二회신인남녀가요「콩클」대회가 개최된다

시흥지국 주최로 신인가요콩클 대회

▶ 1962.2.14 석간 3(9)

鄭始興郡守死亡
「찝」車顚覆으로

十三일하오八시반경 경기도파성군일왕면정자리(森城郡日旺面平子里)앞길을달려가던 경기관一一九호「찝」차가 전복되어승차했던 시흥(始興)군수서리 정재갑(鄭在甲=三六)씨가 사망하고 운전수등 三명이 경상을 입었다 동「찝」차는 시흥군에서 수원(水原)으로 가는도중 운전수가 과속도로차츰을앗기때문에 전복된것이라고하는데 부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이병문(二八=운전수) ▲백태신(四四) ▲장은택(三五)

찝차 전복으로 鄭在甲시흥군수 사망

▶ 1962.4.13 조간 3(1)

12名이負傷
始興서도 빼스事故

十二일 하오 一시二十분 시흥군동면옥산리(始興郡東面玉山里)五五번지 앞길에서 경기영 一七八호「빼스」가 논바닥으로 떨어져 논바닥에 승객 김정애(金貞愛=二〇=시흥市鼎水洞十四番一반)씨등十二명이 三일내지 一주일정도의 부상을입었다。

12명이 부상

시흥서도 버스 사고

▶ 1962.5.19 조간 1(1)

自由센터 來月中에 着工

京畿道始興郡冠岳山附近에

基金12億圜이 미確保

三十名으로 籌備委員會構成

亞洲民族反共聯盟임시총회가 결의한바에따라 韓國에설치되는 自由「센터」는 새달안으로 着工될것이며 그 位置는 京畿道始興郡冠岳山부근으로 대충정해졌음이 十八日하오 알려졌다。韓國聯盟理事長인 朴篤洙씨는 「센터」設立基金으로 이미 十二億圜이 확보되었음을밝히면서 『十月에東京에서열릴 八次總會까지는 상당한進展을 보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三十명으로 구성된 國代表十名이 그發起人이되어 設立、企劃、涉外、總務등 自由「센터」設立籌備委員會의發起人은다음과같다。

▲朴篤洙 ▲金俊燁 ▲朴浚圭 ▲金浩湖 ▲金点坤 ▲金東成 ▲權圭夏 ▲金用雨 ▲朴 ▲金昌順 ▲郭民夏

關係專門人士를 보강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籌備委員會는 우선 反共聯盟總會의際

자유센터 내월중에 착공

경기도 시흥군 관악산 부근에 기금 12억환 이미 확보

▶ 1962.6.5 조간 3(8)

"職場閉鎖는 不當"

勞總 始興鑛山 告發키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기도시흥광산(始興鑛山)의 직장 폐쇄에따르는 一백三十명의 종업원들의 구호대책을세우고 시흥광산회사를 부당해고, 포고령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제기하기로 四일 결정했다.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은 시흥광업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해체를 도모하여 직장폐쇄를했다고 주장하고 시흥광업주식회사측이 작년十二월에 노동조합간부 十七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되어 행정명령에의해서 해고했던 十七명을 복직시킨일이있으며 五월 十五일금전을부시하고 임금인하하는 도급단가(都給單價)제도를 실시하여 이에반대하는 三十명의종업원의취업을 거부하는등행위를해오다가지난五월八일에직장폐쇄단행했다고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四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기에대비해서 시흥광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고 「전국직업공지직구호운동」을 벌리기로 결정하고 十四개산업노동조합에서 七월까지 성금거출운동을 벌리기로했다.

노총 시흥 광산 고발키로

"직장폐쇄는 부당"

▶ 1963.4.6 조간 4(10)

紅蔘特別耕作地로 始興郡등세곳選定

「그동안 人蔘耕作適地를探索하고있던 전매청은 京畿道始興郡및 全羅北道完州郡과 益山郡의 三個地域의조사를 끝내고 이세곳을 紅蔘興造原料特別耕作地域으로 선정했다한다.

여로서 홍삼원료 특별경작지역을 忠淸扶餘郡을 위시하여三十三개郡이되었다.

홍삼 특별경작지로

시흥군등 세곳 선정

▶ 1963.11.28 조간 7(6)

과잉투표

밀양·삼랑진·시흥에서도
유권자수보다 더많아

密陽·三浪津·始興에서도 有權者數보다더많아

野黨側 保全申請 준비

과잉 投票

경기十三지구(始興·安山·[illegible])에서는투표자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나와 국민의당후보 박재환씨는 전투표함의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했다.

동지구 소래면 제一투표구는 투표자수가 一천六백五十八명인데 투표지는백매가더나왔으며 위원장전임원는 투표지가 발견되어 야당측 참관인이 재검표및무효선언환요구했으나 개표함장혀있기때문에 소송을제기하겠다고 박씨는설명했다.

【密山支社】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하면 경남五十八지구밀양(密陽)삼랑진(三浪津)제一투표함을 검표한결과 투표자四천七十六표보다 二十표가 더많은 四천九十六표가 나왔고 민양제二투표함에서는 투표자四천四十八명보다 九十二표가 더많은 四천一백四十표가 나왔다. 이와같은 사실은 민정당참관인 장원술(張遠述)씨가 발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했는데 야당측에서 투표함 보전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그런데 이날삼랑진제一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누어주고 남은투표용지一백장이행방불명되었다한다.

▶ 1964.06.17 조간 7(1)

2名焼死、2名火傷 始興에서

잠든새벽、호롱불켜다 불나

【仁川支社】 16일새벽 8시 퇴원(구) 문이 타죽고 최 10분쯤 시흥군 수암면 고 씨와 장녀 최소(8) 양이 잠리 산19 최(80) 씨 집 중화상을 입었다. 이재로 에서부엌나 한자면 최씨의 초가5간이전소했는데 화인 2명 회만(10) 군과 3남 은 최씨의처 오(34) 씨가 호롱불을 켜다가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主人된 몸 逃走한 洗濯所從業員 逮捕

속보 16일경찰은세탁소를 업고도망갔던신창현(申昌鉉) 28 씨를 [illegible]市上[illegible]洞[illegible]764 죽은장소

이근을 지난8일 새벽8시 [illegible]원(姜[illegible]) 씨의 3아세아세탁소에서 주인은 식도로위협 「오바코트」 「라디오」 시계 현금8천3백원 [illegible] 강탈도주했다.

▶ 1963.12.7 조간 7(7)

當選無効訴訟

始興국민의당서

6일하오 국민의당대표최고위원김병로(金炳魯)씨는 공화당의 당선자 육조남(陸朝南)씨를 상대로 당선무효및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흥 국민의당서

당선무효 소송

시흥에서 잠든새벽 호롱불 켜다 불나

2명소사 2명 화상

동생의 悲報도 모른채

【京畿道 始興郡下에서 本社特派員 金鍾夏·金鍾郁·朴鍾鎭記】 경기도 시흥군 서면 노유리2-2 김봉민(金鳳敏=41=농업) 씨의 맏아들—. 지원복한 석유화학관련에서 24일밤, 추럽 비행기부대의 전화생자 노유기(盧裕基=24)하사의 단하나뿐인 친 노기전(盧基銓=28) 씨는 동생의 [연락] 을 전하고 한단으로 보리을 동생의 편지만 읽었다는 김봉민씨의 미소로 보리 없이 고요하였기 전적는 노하사의 [始興에 있는 盧下士의 兄은말한다]

◇同生의 죽음도 모르고 말하는 모습들씨

사의 죽음도 모르고 아이 이곳에서 3년동안생 기전적는 15일밤 전 부전보한지못한 고있었다。 편하는 가운데 기전적는 어리 노하사 전수하다가 7세로 5세인 노하사 문산중학교입학하고, 노 삼지못의 김씨에게 맡어 입학 이관고 전수시선보 하사는 중등학 2학년에 는 기관민주지원의 소 육원의 무의탁자으로 들 서 중퇴했다。 약국원이 소사 (盧銓) 어갔다는 기전적는 휴전 신앙촌으로 이동하자 이 그는 노하사가 그와함 제자로온일을 얘기했다。 부모들이 부군지도, 삼 곳으로 따라온 이들 형 께 제대를 하지않고 복 아인줄지도 모르는 이들 제는 다시 3년동안 신 업단인을 표명, 원남에자 결제를 성년보육원에서기 입학하여서 생업하다가 기 원하여 간절을 원남에서

꿈이던 땅사러 自願해 갔어요

같이 轉轉한 孤兒院入隊도 같이

전적는 전주시 완산동민 전적가 20세, 노하사가 18 살는 원남을 모아 함이 학교를 졸업한 "세상, 노 세되면 인년, 다시 신앙 하사는 동교6학년때 형 촌에유원을 입원, 선전보 원이 어린원년 성년보육원 육원으로 와있다가 이곳 을 탈출, 원래 기산단 에서 일찍 전대갔다와서 고 문산으로갔다。 논농업이 농토없어 한만하 문산에 도착한 이들은 여 오자하게 생각보자고 문산시청으로가서 사정을 뜨겠음에도 「경도」이전이 얘기하고 문산시장 있는 의논한후 자원입대했다는 「시장」이 양육원에 수용되 것이다。

5년동안 보병제9GOC 다는것이다。 (四) 여있는 보병제9GOC 수색 (尺) 나 아신하시라」고 말했 7년동안 기전적가 휴전 24일밤 기전적가 휴전 대한 기전적는 전단하자 저 입대했던 노하사의

<士下基雲盧 의 時生>

떠날直前에말렸더니 "꿈을위해선 이길뿐"

마자 제대비용에여원을 편지엔 다음과같은 문구 고 잔뜩이 없었다는전。 가있었다。 「전남에 도착하여 한 「전남을 느끼고있어요。 저 무경험수없어 「나는병이 가 귀국하면 월남에대해 입니다。 마음을 집집하니 서 좋은 얘기, 그리고공 면을전과 일자리를 주십 옥사진을 띄어서 가지고 시오」라고는 좋이답는고 갈테요。 형님, 원남에 보 다니면서 식용문 서면과 친구이니 주소를 옮기지 한사리까지 무적 구경형 마십시오。 이곳은 형님이 각을하려 왔다가 김봉민 모은 돈마저 저금해두 씨에게 구원되어 전시장 었다가우리들이 항상옮무었

<동생의 悲報도모른채 손님을맞은 盧基銓씨의 主人집에울려든 동네사람들과 盧씨가

동생의 비보도 모른채

꿈이던 땅사러 자원해 갔어요 시흥에 있는 盧雲基하사의 형은 말한다

▶ 1965.11.27 조간 1(9)

重中農의「中進國」이모

◇…朴正熙 大統領은 최근 公務員과 政府企業體 직원들의 海外旅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략) 의 海外旅行許可는 大統領이 직접 결재하는 아니라 外務部와 協議에 지시하여 報道 出國者이 름과 목적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關係處에 次官급 委員長으로 설치되어있는 公務員海外旅行審査委員會가 겨우 一次關門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審査敏速 朴大統領이 직접 결재하지 못하고 있는 지된것이라는데, 영마련 在日僑胞들의 초청으로 日本을 시찰했던 金玉璽 山市長과 朴榮元 原議員 등도 貴友 關係에서 보류되었다가 연말부 허가되었으며, 朴東宣 大韓體育會 會長의 日本國賓 제외는 否決되고 말았다고.

◇…한때 野黨議員들은 지루한감을 느꼈던지 낭독의 틈틈에 피치를 올려 40분 동안 새해 豫算案 國政企 에 대한 質疑 나오자 「시간이 너무 오 劉成俊議員의 「마라톤 演說」을 만든것을 始發 선언」을 만든것을 始發 點으로 綜合豫算에 들어 갔다. 淸廉物로된 약 2 만두에 달하는 제안설명서 을 낭독한 張長官은 「새해 (昨年) 이 伯仲之勢로 豫算案은 滿場一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자라는 우렁찬 영양가 있는 말로 희의를 진행하던 임시 議長團 가운데 玉璽長은 지지하는 사람는 그의당 선출 선포하고 與黨議員 지지하는 議長은 도표를 선언」. 直後에서 임명했던 사람도 然後 유정여따라 再投票를 중단했으나 앙숙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개헌저희는 다시 부기연기되고 만았다는 얘기. 無効1票는 2번 공천때 玉璽長과 대결했던 사람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생긴것이고, 票決으로 대회에 참석치 못한 白鶴鎭議員 無效은 與黨議員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玉璽長은 再投票에 응하지않고있으며, 또 與黨議員 再投票에서 國 歌가 나올경우 부長官인 玉璽長에게 앙보해야하기 때문에 전첫 再投票에응 하지않고 있다고.

重中農의「中進國」이모

◇…朴正熙 大統領은 최근 公務員과 政府企業體 직원들의 海外旅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략) 의 海外旅行許可는 大統領이 직접 결재하는 아니라 外務部와 協議에 지시하여 報道 出國者이 름과 목적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關係處에 次官급 委員長으로 설치되어있는 公務員海外旅行審査委員會가 겨우 一次關門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審査敏速 朴大統領이 직접 결재하지 못하고 있는 지된것이라는데, 영마련 在日僑胞들의 초청으로 日本을 시찰했던 金玉璽 山市長과 朴榮元 原議員 등도 貴友 關係에서 보류되었다가 연말부 허가되었으며, 朴東宣 大韓體育會 會長의 日本國賓 제외는 否決되고 말았다고.

◇…한때 野黨議員들은 지루한감을 느꼈던지 낭독의 틈틈에 피치를 올려 40분 동안 새해 豫算案 國政企 에 대한 質疑 나오자 「시간이 너무 오 劉成俊議員의 「마라톤 演說」을 만든것을 始發 선언」을 만든것을 始發 點으로 綜合豫算에 들어 갔다. 淸廉物로된 약 2 만두에 달하는 제안설명서 을 낭독한 張長官은 「새해 (昨年) 이 伯仲之勢로 豫算案은 滿場一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자라는 우렁찬 영양가 있는 말로 희의를 진행하던 임시 議長團 가운데 玉璽長은 지지하는 사람는 그의당 선출 선포하고 與黨議員 지지하는 議長은 도표를 선언」. 直後에서 임명했던 사람도 然後 유정여따라 再投票를 중단했으나 앙숙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개헌저희는 다시 부기연기되고 만았다는 얘기. 無効1票는 2번 공천때 玉璽長과 대결했던 사람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생긴것이고, 票決으로 대회에 참석치 못한 白鶴鎭議員 無效은 與黨議員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玉璽長은 再投票에 응하지않고있으며, 또 與黨議員 再投票에서 國 歌가 나올경우 부長官인 玉璽長에게 앙보해야하기 때문에 전첫 再投票에응 하지않고 있다고.

[聞外聞]

지역구 출신의원과 전국구 출신의원이 백중지세로 겨룬 공화당의 시흥-부천-웅진구의 개편대회

▶ 1966.10.14

3百餘名이 패싸움

始興서 婦女子희롱끝에… 20名負傷

2일밤 7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시흥동에 사는 원주민 약1백50여명과 천거민 약 2백명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져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약3시간동안 시흥동은 부녀자대로 주민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싸움의 원인은 원주민깡패 5~6명이 여러차례 천거민부녀자를 희롱하고 돈도 뺏은일이 있으며 폭행 사고도잦아 서로의 감정이 좋지않았는데 2일 오후 천거민 권임섭 (21) 한성환 (30) 씨등이 시흥당구장에서 사소한 오해로 원주민 권종호 (24) 씨를 폭행한것이 도화선이되어 쌍방간에 패싸움이 벌어진것이다. 천거민들은 몽둥이를 들고 극장 음식점등을 누비며 원주민이면 무차별로 폭행, 원주민들은 동관매로 응수했다.

경찰은 1백여명의 기동대를 동원, 3시간후에 싸움을 진압시켰다. 경찰은 권임섭씨등 7명의 천거민과 이재권씨등 2명의 원주민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천거민 10명을 폭력 죄에 의부했다.

시흥서 부녀자 희롱끝에…

3백여명이 패싸움 벌여 20명 부상

▶ 1967.2.17

始興등변두리에
家內工業센터

서울시는 16일 시흥, 상계, 신림, 거여동 변두리지역에 가내공업센터를 설립, 영세민들의 생활기반을 만들게 해줄 세웠다. 당국은 우선 2천만원을 들여 소규모 변두리 공장 4개를 3월내로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방직기계, 노트 공장등을 세운다는 것이다.

시흥동 변두리에

가내 공업센터

▶ 1967.3.25

캐나다서 보낸衣類
始興難民村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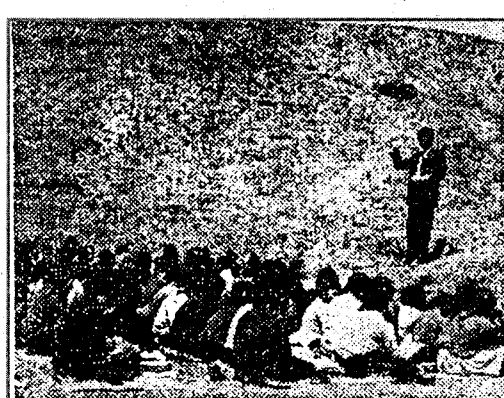
24일 서울시는 캐나다 유니태어리언분사회서 난민구제용으로 기탁해온 의류 1만여점을 영등포구 시흥동 난민촌의 1천2백가구에 분배 나누어 줬다.

캐나다서 보낸의류

시흥 난민촌에 전달

▶ 1967.4.28 조간 4(1)

始興難民村에
사랑의 露天敎室



◇배움길을 잇게한 노천교실.

大學生 10名이 지난12月부터
百餘어린이에 中學課程 授業

서울의 변지 영등포구시흥동 수재민촌에 중학교과정을 무료로 가르치는 배움터가 마련됐다. 무료봉사를 나선교사들은 배희남 (22) 심병섭 (22) 군등 연세대신학과 기독학생회회원 10명. 배움터라야 판잣집 언덕위에 거적과 휴지로 깔아놓고 지난 12일에수업을 시작한 보잘것없는 노천교실이다.

시흥 난민촌에 사랑의 노천교실

대학생 10명이 지난 12월부터

▶ 1967.6.9 조간 3(1)

곳곳서 代理投票 暴力사태

野參觀人에 못매

始興2投票所 新民黨青年들도反擊

8일 오전7시40분경 서울영등포갑구 시흥 제2투표소에서 공화당 참관인송기태씨(52)가 신민당참관인 유남주씨(43)에게 너무 오래 투표인명부를 대조한다고 항의함으로써 시비가 벌어져 최영전(52) 위원장의해 양당 참관인이 퇴장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투표소밖으로 나오자 변관씨(42)등 4、5명의 공화당원이 신민당참관인 유남주씨에게 괴투성이가 되도록 못매겼다.

얼마후 신민당청년기동대원 약20명은 6대의 짚에 분승, 투표소안으로 돌려와 공화당참관인을 집단구타하고 이를제지하던 참관순순경등 3명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警官앞서 取材記者폭행

투표가끝난 8일오후 5시20분경 서울 용두1동제3투표소에서 대리투표방지를 취재하던 동아방송 이대식기자가 공화당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기자는 대리투표를 받견한 청년이 청합리경찰서장실에 있는것을 알고 이를 취재하려고 서장실에 들어가자 안에있던 공화당원 정태현씨(34)등3명이 「너는뭐냐? 기자면 다냐?」라는등 폭언을 퍼붓고 10분동안 집단구타했는데, 이때 이광승 지켜보던 경찰관은 자리를 피했다.

河東에서도 參觀人납치

【河東·晋州 中部】하동군내에선 야당참관인의 추천서류가 강탈되고, 참관인이납치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공개투표가 행해지는등 공포분위기속에 투표가 진행되고있다고 주장 「신민당 문부식후보가 공포 분위기를 없애라」고 주장했다.

選擧用電話線도난

【安城】8일오후9시30분경 안양읍 신안양리에서 시흥군 안양-수원-안양간의 선거연락용 시외전화선 6백m(2·9㎞)가 절취되어 이날밤11시까지 통화가 중단되었다.

선관위에 요구했다.

8일오전 6시30분경 무소에서 20대의 청년 양면 수명이 나타나 동면 군악 양면 1、2、3투표구 신민당 천 참관인 정탁동씨(40)등 3명의 추천서류를 빼앗아갔다.

◇騷亂의現場 8일오후1시25분경 서울서대문갑구 제3투표소앞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박모씨(34·중앙)를 사이에놓고 공화-신민 양당원들이 「가자」「못간다」로 시비를 벌이고있다.

곳곳서 대리투표…폭력 사태

야 참관인에 못매. 시흥 2투표소 신민당원 청년들도 반격

▶ 1967.5.9

區廳職員 暴行致死

始興洞民들이,不正캔다고

◇숨진 손씨.

난민주택건립보조금 횡령여부를 조사하러나갔던 서울영등포구청관악출장소 사회담당 손광선 (38·시흥동220)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7일 새벽1시쯤 숨졌다.

손씨는 지난6일 오후4시쯤 서울시흥동 난민주택건립보조금 7만원을 횡령했다는 동민들의 진정서를 받고 시흥동27공장 심명선씨를 찾아 사실여부를 물던 도중 김장규(48·시흥동산89)、강용남(27·ㅋ)서정수(34·시흥동산90)씨 등 3명이나타나 「너는 무엇이나 이런것을 묵여야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구두끈으로 손씨의 목을졸라 심신시켜 이튿날새벽 1시쯤 죽게했다.

경찰은 이들3명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시흥동민들이 부정캔다고

구청직원 폭행지사

▶ 1967.12.6 조간 4(3)

始興등7個洞에 신규로區劃整理

5일 서울시는 68년도에 22억원의 예산으로 시흥 중곡 도봉 우이 수색 중화신림등 7개동에 3백80만평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새로 벌이고, 이미 구획정리 작업을 하고있는 창동 망우리 화양 역촌 연희 성산 김포등 7개지구의 구획정리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신규구획정리사업 정리지구의 정리면적과 예산은 다음과같다.

▲中谷=40만평(2억40만원)▲道峰=60만평(3억6천만원)▲牛耳=60만평(3억6천만원)▲水色=60만평(2억4천만원)▲新林=60만평(3억6천만원)

시흥등7개동에

신규로 구획정리

▶ 1968.3.27 조간 3(1)

始興앞바다에 怪漢 5名出沒

潛跡경로 微夜수색

인근海岸·山岳봉쇄

고무보트利用-日製농구화 자국

漁夫申告

[옹진·인천서 裴二燮 鄭德茂記者] 26일 새벽 1시쯤 시흥군 군자면 유곡리 앞바다에 괴한 5명이 상륙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해안선과 인근 산악지대를 봉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27일 새벽 1시현재 괴한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괴한들은 북괴에서 남파된 무장공비들이로 보여지고 있다.

괴한들이 이날 밤 군자면 해안 경찰의 눈을 피해 상륙한 것은 송 모씨(27) 등 어부 8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던 이날 밤 8시쯤 괴한들이 상륙한 것을 목격, 신고한 것이다. 이 어부들은 괴한들이 상륙한 지점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4명의 어부들이 괴한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어부들은 괴한들이 상륙한 것을 목격한 것은 밤 8시쯤이었으며 괴한들은 모두 소지품 등을 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괴한들은 모두 10명이었으며 이들 중 3명은 군복을 입었고 나머지 7명은 사복을 입었으며 이들 중 1명은 키가 큰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괴한들은 모두 고무보트를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은 고무보트를 지키고 있었으며 나머지 9명은 모두 소지품을 지고 있

▶ 1969.1.14 조간 7(5)

또 건널목慘事…4名절명

始興 列車·택시충돌…「우선멈춤」않고 가다

지난 8일밤에 있었던 서울휘경동 건널목참사에 이어 일요일인 12일밤 7시20분쯤 시흥역에서 4백90m떨어진 서울영등포구 시흥동558 남부건널목에서 특급열차와 택시가 또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날 여수발—서울행 제61열차(特急 불꽃號=기관사 張永韓·45·대전열차사무소)가 이 건널목을 통과할 무렵 영등포에서 시흥군 서면으로 가던 유림운수소속 서울영1·961호 코로나택시(윤전사 趙萬根·33·영등포구 구로동 간이주택247)가 우선멈춤을 않고 지나치다가 정면충돌을 한것이다.

충돌한 택시는 시흥역구내까지 기관차에끌려간바 탑승객 평연규(平淵奎·41·시흥군서면 하안1리)씨는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옮기는도중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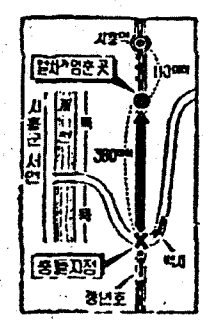
종년호 특급열차는 부서진 택시를 미58병기며 레이카로 끌어올리는동 사고뒤처리로 약1시간20분연착, 급행로등되돌려짜아되었다.

폭이 4m밖에 안되는 이 건널목에서는 지난67년12월과 68년2월에 열차와 트럭이 충돌하는등 사고가잦아 68년8월에 수동식차단기를 설치했으나 간수는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나와있기때문에 이날 사고시간에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았다.

승진평씨는 아들의 대학입학 문제로 서울에 갔다오는 길이었으며 한어인친척 결혼식에 다녀오다가 서 한마을 사람끼리 영등포에 한숨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사고원인은 건널목이 S자형으로된 경사진곳에있어 모든차량은 일단정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택시운전사 조씨가 우선멈춤을않고 급진한때문이었다.

◇숨진 운전사 조만근씨, 평연규씨, 한영동 어인과 답(위로부터).

부딪쳐 380m나 끌려가 박살이 나택시를 크레인으로 끌어내고있다.



시흥 또 건널목참사…4명 절명

열차-택시충돌

▶ 1970.9.18 조간 4(1)

人物로 본 韓国学

人脈

歴史의 뒤안길을 엮는 特別連載

<34>

冠岳山은 進歩主義者

壯烈……어느 女斥候兵

水原에 뿌려져 뻗어난 農学人脈

庶流·土洪人脈

冠岳의 風水分析

広州山脈 ①

驪城, 竜平, 始興, 高陽

▶ 1970.3.18 조간 8(7)

陽西·始興·梧柳洞 市外전화

(8)局으로 編入

오는21일 0시를기해 양 전를로 지하2층, 지상19층서(陽西)、시흥(始興)및 (69·8m)、연건평1만2오류(梧柳)의 자석식교환 천7백평에 5백4개의 객방식이 자동식교환방식으로 실을 갖추고있다。

변경、시외전화가 모두 시내전화로 자동화된다。

체신부는 이지역 주민의 전화소통편의를 위해 서울시내 전화가입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수동식전화를 모두자동식 다이얼전화로 바꾸기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전화가입구역으로 편입된 이지역의 국번은 ⑧번이되며 서울시내 가입자를 호출할때는 먼저 0번을돌린다음 전화번호를 돌려야한다。

양서-시흥-오류동 시외전화

(8)국으로 편입

▶ 1970.6.4 조간 7(8)

어린이伝染病번져

始興郡노온파리

【安髮】시흥군 서면 노온파리입대에 이름모르는 병이 번져 3일현재 홍후근(40)씨의 장녀 미영(4)양이 숨지고 최문자(61)노파의 3남 천부삼(15)군등 15세미만의 어린이 7명이 앓고있다。

군보건소는 이병을 아메바성이질로추정、방역에나서는 한편 환자들의 가검물을채취、도위생검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어린이전염병 번져

시흥군 노온파리

▶ 1970.11.22 조간 6(1)

술렁이기 시작한 永東地区

一部지역 換地공고

◇하늘에서본 永東地区 (본사 제비호機上에서 李榮源기자 촬影·金東元조종)

60萬규모로 始興地区와 연결

永東橋가설, 議政府-京釜高速道 南北으로 관통

삼성-도곡洞에 商工部庁舎등 들어서

年內 替費地 10萬坪 공매

換地된곳엔 建築허가도

〈수도권 정보〉 술렁이기 시작한 영동지구

일부지역 환지 공고

60만 규모로 시흥지구와 연결

▶ 1971.1.20

預金百50萬원 가로채

시흥우체국職員구속 電話請約金도

19일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예금한돈을 가로챈 시흥우체국저금계원 박종근(朴鍾根·33)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134 이예자(李藝子·32)씨등 13명에게서받은 전화청약금 78만원을 국고에넣지않고 가로챈것과비롯, 그해12월11일 이재관(李在光·50·시흥동 81)씨등 8명이 예금한 10만여원을 떼돌리는등 두달동안 모두 20여차례에걸쳐 1백50만원을 가로챘다는것이다.

박씨는 통장과 예금주들에게 정액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우체국 장부에는, 예금이 전혀안된것처럼 꾸며놓고 돈을 찾으려온 예금주들에게는 자기 돈을 붙해왔다고 한다. 이사지 싶은 박씨가 자리돌 빈사이 돈을 찾으려 왔던 이재관씨에게 발각됐는데 유용비로 박씨는 가로챈 돈을 변각했다고 한다.

예금 백오십만원 가로채

시흥 우체국 직원 구속

▶ 1971.5.26

洞職員이 通知表숨겨

始興 百12장

25일오전6시20분쯤 시흥2동 동직원 서윤영(元尊晶·32)씨가 박경규(朴慶出·51·시흥2동산 91)씨등 1백12명의 투표통지표를 나눠주지않고 시흥2동 제2투표소앞 답배가게에 숨겨둔것을 신민당 정수현(鄭守鉉·32)씨등 3명이 찾아냈다.

원씨는 이날아침까지 나눠주지못한 통지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기 위해서 보관했다고 변명했다.

동직원이 투표 통지표 숨겨

시흥 백십이장

▶ 1971.2.5

비전'71 私學 ②

中央大学校

医大부속病院·国際大 건립

水原-果川까지 2萬평 대지 「10개년 매스터플랜」

◇생生 고투갓순 대學메인스티디움 매스터플랜 流線型.

◇「人間다운 人間」을 만들기 교육이념 中央大 선생님들.

중앙대학교 의대부속병원 · 국제대 건립

수원 과천까지 2만평 대지

▶ 1971.4.24

年內 準工業地설정 어려워

始興등5개地区 豫算한푼도 策定안돼

주택가의 공해업소를 정리하고 도심이무분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5개 준공업지구 설정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데다 관계국간의 협조도 9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지못하고있다. 양택식(梁宅植) 서울시장은 작년7월 시흥, 김포, 독산, 송파, 성산등 5개지구 5백18만7천평을 준공업지구로 만들어 도심에있는 3천7백여공장을 업종별로 계열화하여 각지구에 분산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8월초부터 착수키로 한 이 사업은 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지않아 공장 부지와 공업시설, 도로, 전기, 공업용수등 여건조성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또 계획추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국은 공장유치문제 이므로 주무국이 산업국이라 주장하고 있는가하면 산업국에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야하며 보사국에서도 공해업소 조처에 대한 협조가없다는등 이유를 내세워 관계국 간에 이견(異見)을 빚고있다.

시 산업국 당국자는 이 에대해 『지난 3월 생산성 본부에 용역을 주어 세부 지원을 만들고 있으나 재정 사정 때문에 유해안에 것이다』고 말하는 어려운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을

公務員아파트起工 永東地區10月완공

서울시는 24일 오전 영등포구신사동)에서 공무원 아파트12동을 기공한다. 시산하 공무원 4백20가구를 입주시킬 이 아파트는 오는10월께 완공된 예정이다.

金華아파트 生活館 개관

5百萬원들여 託児所·図書室갖춰

금화시민아파트 생활관이 23일오후 문을 열었다. 5백46만원을 들여 아파트53호동에 마련된 이 생활관은 탁아소, 도서실, 진료소 부녀교실등을 갖추고있다.

기독교 대화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는 50~60명을 수용하며 부녀교실에서는 원 60명에게 아동강, 편물, 양재등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해준다.

생활관에는 이밖에도 「갈 머니의 집」을 마련, 연례 비전등을 비치해 할머니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했으며 어린이와 어머니의 도서실, 가정문제상담소, 우량 및 분양상품전시장등도 들어선다.

通行路막힌 20住民 所有主가 팔아버려

서울서대문구대현동60의28 이병덕(李炳悳·45) 씨등 주민20명은 사용중인 준영로 관한 소유주인 함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인보) 에서 작정개인에게 팔아버려 길이 막히게됐다고 23일 서울시와 보사부당국에 진정했다.

이길은 70도·비탈진땅을 폭2·5㎞, 길이10㎞정도의 사도로 지난9일 소유주인 함국사회복지협의회 박순덕(朴順德·62·대현동60의28) 씨에게 도로를 포함한 비탈진 땅 25만8천40평을 팔았다는 이씨등은 팔아버린 땅 40평을 관앗었다. 씨가 새로사들인 땅에 시선을 집게되고 세우는경우 진입로만 없게되고 나머지 19가구는 폭1㎞정도의 좁은길을 사용할수밖에 없다고 관계당국에 시정을 한편 호소했다. 박씨는 『길을 마지는 않겠다』 정당하게 산것인데 왜 더드는지 모르겠다』고 맞서고있다.

시흥등 5개지구 년내준공업지

설정 어려워

▶ 1972.4.5 조간 1(7)

山地개발지시

朴大統領, 始興들러

朴正熙대통령은 4일오후 4시구락부 中央競馬大会에 참석하고 돌아오는길에 京畿道始興郡旺谷面旺谷里 새마을사업현장을 들어보고 『앞으로 정부는 山地개발을위한 立法조치를 마련할계획이나 그이전이라도 마을주변산에 山主와 협의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되는 有実樹를 심는등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金奎斗里長의 보고에서 아직 旺谷里에 전기가 들어오지않았다는말을 듣고 『電化사업은 언제나 지원에따라 되는것이지만 自助사업에 협의를 보이고있는 이마을에 특별히 전기를 빨리 달아주도록 하라』고 수행했던 金炳卿경기도지사에게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모든 사업은 所得증대와직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공사중인 2·1㎞의 이마을 農路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이 합심해서 不在地主를 설득하여 길을 내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朴대통령은 이어 九老韓국수출공단에 들러 柄明顯이사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수출증진시장과 새한精密工業을 둘러봤다.

朴대통령시흥들러

산지개발 지시

▶ 1973.1.30 조간 7(8)

◇진대사(오른쪽)가 김이장에게 성금을 전하고 있다.

本社주선으로 새마을結緣

駐加 韓國大使館-始興郡당삼리

캐나다주재 한국대사관과 경기도시흥군 남면 당삼리가 조선일보사의 주선으로 29일 오후 새마을 자매결연을 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구미(歐美) 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차 귀국중인 진필식(陳弼植) 대사는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 밴쿠버총영사관,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 몬트리올등 3개 무역관직원들이 모금 성금 20만원을 이장 김기양(金基陽·37)씨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협조를 약속했다.

김중원(金鍾元·56) 남면 면장, 유지청(柳志靑·50) 지서장등 마을 유지와 주민들이 모인 이날 전달식에서 부락 지도자 유광렬(38)씨는 『이돈으로 현재 진입에 있는 마을 회관을 10평에서 20평으로 확장하겠으며 부락발전을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시흥군 당삼리

본사 주선으로 새마을결연

▶ 1973.5.5 조간 1(9)

企業體移轉확정

浚渫公社 이미 仁川옮겨
住宅公社는 永東 지구에
水資源 개발公社는 懷德
道路公社는 始興 板橋로

정책에 따른 산하 국영기업체의 地方移轉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浚渫公社는 지난 3월말에 이미 仁川으로移轉을 완료했으며 ▲住宅 公社는 年末까지 서울 永東지구에서 鍾路로 지어 移轉하며 ▲水資源開發公社는 연말까지 大田懷德 지구에 ▲道路公社는 始興郡 板橋지구에 각각청사를 신축, 이전하는것으로 잡혀있다.

건설부는 首都圈 인구분산

기업체 이전확정

준설공사 이미 인천 옮겨, 주택공사는 영동지구에, 수자원개발공사는 회덕, 도로공사는 시흥 판교로

▶ 1973.7.10 조간 6(5)

가리봉洞과 始興郡 철산里 33萬坪에 第3 수출工團 조성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이에 인접된 경기도시흥군서면 철산리일대 37만8천6백평에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단지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9일 「입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심사계획인가」를 추가고시, 수출공단(이사장 최명련·영등포구구로동188외5)이 해당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도시 계획법및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사용할 토지는 영등포구 가리봉동 326의 1동 8백10필지와 경기도시흥군서면 철산리322동 41필지등 모두 6백51필지이다.

사업착수는 73년4월이고 준공예정일은 74년12월31일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해당토지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등을 시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러시아워 변경運行 572번 立席버스

서울시는 9일부터 성동구 거여동, 마천동일대 주민들의 교통난을 덜기위해 율지로6가까지 운행하던 5백72번 입반버스노선을 러시아워에 한해 신당동—퇴계로—율지로5가—청계천5가—율지로6가로 연장운행토록했다.

가리봉동과 시흥군 철산리 33만평에

제3수출공단 조성

▶ 1974.3.9 조간 7(12)

始興에 택시强盜

8일오후 8시45분쯤 서울冠岳區始興1洞 제3지구 자동차검사장 앞길에서 서울1아4282호 코로나택시를 타고가던 20대청년2명이 과도로 운전사 [illegible]씨(40)의 얼굴을 찌르고 3천2백원을 빼앗아갔다.

시흥에 택시강도

▶ 1974.3.10

脚光의 여울따라 ②

電鐵驛주변 不動産 가이드

始興지구는 永登浦區 始興洞 禿山洞 加里絲洞등 3개동으로 永登浦에서 水原에 이르는 폭50㍍의 산업도로변에 자리한다고 이다. 이지역은 산업도로변문에 개발이 한발한발다가 때문에까지 전체에게 되어 개발속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빠르다. 서울시는 68년부터 이지역 1백70만평에다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있다. 서울도심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지로서는 큰관심거리가 없다. 영등포山업 등전 고지대인데다가 앞에 펼쳐진 광활한 시원한 느낌을 준다.

예비해 50%이상이 뛰었고 거래도 비교적 한발한발 활발한 중심으로 1㎡안의 택지값은 평당3만원에서 2만5천원선이다.

㎡에서 2㎡떨어진 구획정리지구는 평당 2만원안팎. 이곳은 금년안에 구획정리가 매듭지어질 전망이 없고 상하수도시설이 안됐기때문에 아직 관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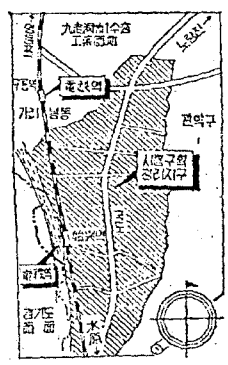
주택값은 건축자재의 인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 대지50평에 건평 20평짜리 신축가옥이 4백50만원선, 3년전에 지은집이면 3백만원이고 상수 있다. 저지대이고 하수처리가 안된것은 2백50만원 정도.

전세값은 작년가을에 비해 10%가량올라 방1개 20만원, 독채 (방3개)는 80만원정도. 이는 변두리라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田新鮮씨(始興洞 539)주인 李敏雄씨(41)는 "날이 춥기전에 손님이 많이 때문에 개발가진 부동산값이 작년보 보합전 이라고 말한다."

주인들은 서울시가 손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택지가 높아지면 값이 뛰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始興지구



宅地등 작년比 50%나 뛰어

都心까지25分 坪당 3萬원線 去來활발

始興지구는 永登浦區 始興洞 禿山洞 加里絲洞등 3개동으로 永登浦에서 水原에 이르는 폭50㍍의 산업도로변에 자리한다고 이다. 이지역은 산업도로변문에 개발이 한발한발다가 때문에까지 전체에게 되어 개발속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빠르다. 서울시는 68년부터 이지역 1백70만평에다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있다. 서울도심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지로서는 큰관심거리가 없다. 영등포山업 등전 고지대인데다가 앞에 펼쳐진 광활한 시원한 느낌을 준다.

시흥지구는 평당 2만원안팎. 이곳은 금년안에 구획정리가 매듭지어질 전망이 없고 상하수도시설이 안됐기때문에 아직 관망이다.

주택값은 건축자재의 인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 대지50평에 건평 20평짜리 신축가옥이 4백50만원선, 3년전에 지은집이면 3백만원이고 상수 있다. 저지대이고 하수처리가 안된것은 2백50만원 정도.

전세값은 작년가을에 비해 10%가량올라 방1개 20만원, 독채 (방3개)는 80만원정도. 이는 변두리라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田新鮮씨(始興洞 539)주인 李敏雄씨(41)는 "날이 춥기전에 손님이 많이 때문에 개발가진 부동산값이 작년보 보합전 이라고 말한다."

주인들은 서울시가 손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택지가 높아지면 값이 뛰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禿水산업도로 양편은 상수도가 풍부하고 집이 들어서 있는 시흥지구의 한 지점은 『멀리 하루15평정도가 점도는 이용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은 역에서 2㎞안의 주민이 대전이라고 말했다.

구획정리지구는 전철이 개통된다해도 변경될 일은 없다. 2~3년전이나 가야 전철을 탈수있어 산업도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편이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

108번, 107번 두노선의 입석버스가 始興기점 시발역이 구획정리지 시발역은 이지역구획정리사업을 금년엔 예산이없어 손을못대고 75년에가서 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리사업을 금년엔 예산이없어 손을못대고 75년에가서 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발역이 구획정리지 으로 2분배차를 하고있고 요시간은 시청앞까지 45분 정도. 전철의경우 도보10 ~20분, 차기다리는시간10 분, 만는시간25분을 합으면 최소45분이 소요된다. 때문에 전철가서 기다렸다가 타는 전철보다는 아무때 나 탈수있는 시내버스편이 더 편.

준공업지역은 평지 60평 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기때문에 서민용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연예 이기 지서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加里絲洞 87 못)에 부면방 폭 쪽 서의 방)도 開絲洞은 있는 남부순환도로변은 3층이상 전용만을 짓도록 되어있어 손님이 없다. 값은 비교적 비싼편이로 도로변이 평당 6만원, 주택지는 4만2 6천원선, 집값은 연에서 5 백만원 거리의 신속 스피드가 값은 방수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는 공단중업원들에게 도심지보다 비싼값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전세값은 방하나짜리가 30만~40만원, 독채(3개)는 1백20만원을 받는다. 삭월세로는 방하나에 월 5천원씩. 그런데도 방을찾는 여공들이 북적북적 전세입이 끊나면 옥려받는다는것.

부동산업자들은 전철역이 들어서면 이지역의 부동산값이 내릴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서울역까지 버스로는 40분이 걸리나 전철로는 15분이면 충분하므로 전세를 살면 여지없이 집에서 출근하게 된다는것. 영주변의 평당 6만원선에 거래된다.

남부순환도로변과 준공업지대로 묶여있는 택지들은 평당 10만~12만원 기와집은 8만원정도.

대지50평, 건평20평 (방 4간)짜리면 4백50만원을 호가. 이는 작년가을에 비해 1백만원정도가 오른값이다.

이지역에 업장이 크게 형성은 공업단지를 지고있어 이 전세가 잘나가는데다가 전철역이 들어서 서울역까지 15분에 주파할수 있게 되기때문. 이일대의 주택지 고지대 되고 있다. 한산한 거의 없고 기존 수택만이 거래 되고 있다.

◇始興지구 禿山洞에 짓고있는 D주택단지.

◇始興지구 주변

작년 8월부터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 현재 작년

◇九龍驛주변

九龍공단을 지고있는 준공업지대서 택지거래는 거의 없고 기존 수택만이 거래 되고 있다. 한산한

◇九龍공단 입주체인지 동의도로 전철과는 직접관계가 없다. 이일대주민들은 전철보다는 내년에들리는 남부순환도로에 더 관심을 보이고있다.

〈김문기자〉

시흥지구 평당 3만원선 거래 활발

택지등 작년비 50%나 뛰어

▶ 1974.4.21(2)

疑惑의 自首 "7千9百萬원 들치기 당했다"

—朱安震協 朴대리-金양 警察에 나타나기까지—

「盜難돈」누이집 은닉說

始興에 刑事隊 釜山행적에도 疑問點 많아

金양이 犯行제의

서울거쳐 釜山으로…露宿 돈잃어 密航포기

◇경찰에 자수한 박대리의 김양의 피로에 지친 얼굴. <李相浩기자 촬影>

◇박대리가 가지고 자수한 9억1백3천5백원.

우리關係에 후회는 없다

◇…

自首길에 妻子만나

夫人"용서하겠으니 돌아오라"흐느껴

◇…지 누와 처인 옛서울역에서 발을 밟힌 노모 앞에, 3자녀는 길은 감에 빠졌다.

날아올린者 울리겠다

발새 앞일걱정

「돈」누이집 의문점 많아

시흥에 형사대 부산행적에도

▶ 1975.2.28 조간 7(9)

始興에 癩病센터

4月착공 내년開所

나병에 관한 연구와 요원 훈련, 환자치료를 전담할 나병센터가 始興군에 새로 세워진다.

日本 사사가와기념보건협회(재단이 내는 약 2억원의 전액 시비와 부대시설비로 오는 4월 착공, 명년1월에 문을 열 제일 이센터는 국내최초의 나병종합연구조사 기관으로서 전문의 수련과 나병전담요원의 훈련등의 업무도 맡게된다.

센터안에는 약 50개의 병상(病床)을 마련, 집에서 치료가 곤란한 환자가운데 6개월~1년간 단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대한 무료치료사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센터 진료지역은 27일경 제장관회의한승과 확정된다.

시흥에 나병센터

4월착공 내년 개소

▶ 1975.11.13 조간 7(7)

始興 등산도끼 연쇄强盜 검거

16歲 소년낀 3人組

속보=지난 9일과 10일 始興에서 일어난 등산도끼 연쇄강도사건은 16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2명을 3인조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서울西部경찰서는 12일 오후 權東五(21·주거부정) 咸보(16·釜川시구평동) 安모(18·서울東大門구淸涼2동) 등 3명을 검거, 특수강도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일 오전1시30분 始興1동23의10 永登浦구 金成昭씨(32) 집에 들어가 등산용손도끼와 파도로 金씨와 金씨 집에 세든 吳庄鎭씨(33)를 위협, 金씨집에서 은수저2벌과 구두2켤레를 뜯어 始興에서 현금 1천5백원과 손목시계 1개를 훔쳤으며 10일오전 같은시간에는 權과 咸 등2명이 權이 종업원으로 일한적이 있던 始興1동457 始興여인숙주인 朴元鎭·(43)에 복면을하고들어가 朴씨를 위협, 현금21만원과 손목시계1개를 훔친사실을 자백했다.

이들은 10일낮 權과사귀고 있던 점퍼부 李모양(20) 을 꾀어낸 權의 친구許모씨(22)를 보복살해하려고 許와 李양을 만나 大德군 東면新上리 京釜고속도로변 숲속으로 끌려가자고 유인, 밤 9시쯤 權이 許씨를 파도로 찍었으나 許씨는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은채 달아났던 사실도 밝혀졌다.

시흥 등산도끼 연쇄강도 검거

16세 소년낀 3인조

▶ 1976.2.7 조간 7(7)

始興극장에 불

부속店鋪6棟 전소…人命무사

6일 밤10시20분쯤 永登浦구 始興1동121의4 始興극장(대표林錫瑄·46) 부속상가이층가게(주인 趙鍵田·36)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극장건물(2백평)과 점포 6동(60평)을 전소시키고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불길은 처음 목격한 양전실업 종업원 양(24·화장품대리점)에 의하면 상가안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가게문을 열어보니 상가 중앙의 기가치솟고있었다는것이다. 불이 났을때는 마지막 프로가 끝난지 10분후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액을 4백8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극장측은 2천5백만원이라고 말했다. 불은 처음 목격한 양전실업 종업원 양씨에 의하면 상가안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가게문을 열어보니 상가 중앙의 기가치솟고있었다는것이다. 불이 났을때는 마지막 프로가 끝난지 10분후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액을 4백8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극장측은 2천5백만원이라고 말했다.

시흥극장에 불

부속점포 6동 전소…인명무사

▶ 1976.2.10 조간 7(8)

保險金 노린 火災

始興劇場… 兩街 가게주인 둘 구속

서울 永登浦구 始興극장(대표 林錫鎭·47)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南部경찰서는 9일 始興극장 1층연쇄상가에 세든 이웃가게 주인 貢金巡씨(40)가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불을 나게한 것으로 보고 貢씨와 처남 趙炳田씨(30·始興2동산89)를 입건, 전기사업법위반및 공중화단 전기사업법위반 및 공중위험죄 등의로 구속, 방화혐의로 구속, 방화혐의로 추궁하는한편 극장영사주임 金在萬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貢씨가 작년11월28일 보험금 20만원, 화재 1만5천원에 세든지 한달만인 12월28일 가게안에 2·5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하면서 처남 趙씨를 시켜 낡은 PVC전화선 2개를 사와 영사주임 金씨에게 가설케해 낡은 전화선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인화물질에 인화원인으로 화인을 남겼다.

▲趙炳淳(42·아진해운무)∥징역 1년▲金炳洙(41·상해운공사영업부장)∥징역 1년▲南相乾(39·진양해운상무)∥징역 8월▲李重燮(51·국제상선업무)∥징역 8월▲金賢錫(37·코리아라인영업부장)金興圭(48·대한선박상무)曺福鉉(40·대한선박영업부장)李明燮(40·범양용선영업부장)金錫俊(57·코리아라인선무)趙愚一(55·코리아라인선무)∥징역 각 10·대한선박부사장)∥벌금 각 10만원.

보험금 노린 화재

시흥극장…상가가게 주인 둘 구속

▶ 1977.1.21 조간 6(5)

青果도매市場 세군데에 新設

千戶 永東 始興지구

서울시는 올해 千戶 永東 始興지구에 청과물 도매시장 1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재래식시장 30개소에 자금을 지원, 근대식 시장으로 개발키로했다. 현재 서울엔 龍山의 청과물 도매시장과 농협에서 경영하는 공판장이있으나 시설이 부족, 20여개 유사도매시장에 기생을 못하고있고 그나마 江南지역 소비자들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5백평이하의 재래식시장 55개중 15개소를 준 백화점으로, 5백~3천5백평짜리시장 15개를 소형센터형으로 각각 개량키로하고 업자부담 15억원, 서울시 융자 15억원으로 추진중 공익시설을 마련한다는것이다. 청과물 도매시장의 신설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월안에 구체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애육위원회가 국제회사업본부=24~28일, 가톨계회연구원, 문의☎6297.

▲「동북아해양어업의 韓·중·日관계」에 대한 심포지움=24~26일, 서울중구 청진동 아세아정책연구원.

▲현대문학사 신인문학상 시나=22일 오후1시 종로2가 YMCA2층강당, 전국대명정대학원 및 순日本부동산업

청과 도매 시장

세군데에 신설
천호 영동 시흥지구

▶ 1977.1.29 조간 8(8)

始興떠나 서울도착
롯데野球팀 대행군

18일 광주를떠나 임진각까지 풍입열원 대행군에 참여했던 롯데 자이언트야구부는 11일만인 29일 오전 9시30분 시흥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다. 선수단은 제1한강교를 거쳐 오전11시30분쯤 남영동 동사앞을 지나게된다.

시흥 떠나 서울도착

롯데야구팀 대행군

▶ 1977.7.14 조간 6(5)

始興水災民에 라면
內務部간부 부인들
金毅烈내무장관부인 金숲淑여사 내무부간부부인들은 13일 안양시와 시흥수재민을 방문, 라면 3백상자를 선물했다.

내무부간부 부인들

시흥수재민에 라면 전달

▶ 1977.12.31 조간 7(1)

아파트에 「殺人 放火」강도

어제밤 가정부 죽이고 金品강탈…불질러

始興 광복아파트

수사관들이 살해된 방을 수사관들이 검증하고 있다. 불을 질렀으나 다행히 큰불이 되지는 않았다.

商街 2층茶房에 불

漢江洞 이발소-中國음식점도 태워

아파트에「살인 방화」강도

시흥 광복아파트

▶ 1978.5.13조(7)10

揚水機 12대등 始興郡에 전달

中央大生들 물푸기 勞力지원도

◇농민들의 가뭄 극복작업을 돕고 있는 중앙대 학도호국단 간부들.

중앙대 학도호국단 사단장 강경중군(법학과 3년) 등 간부들은 농번기 7천여명이 모은 2백만원으로 양수기 12대, 호스 6개를 구입, 가뭄에 시달되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보내달라고 12일 오전 시흥군에 만졌다. 이어 장곡동 간부 30여명은 시흥군내에서 가뭄피해가 심한 파천면문원리란 찾아 지하수 퍼올리기등 가뭄극복 작업을 도왔다.

양수기 12대등 시흥군에 전달

중앙대생들 물푸기 노력지원도

▶ 1978.5.28조(7)1

"食水있읍니다 필요한 분은 오세요"

——永登浦 始興1洞 향화목욕탕 安炳錫씨 "異色간판"

上水道 끊기자 私財들여 地下水 뽑아

消毒藥까지 풀어 淨化시켜…沐浴湯은 오전만 영업

3週째 무료로…이웃 3백여家口 혜택

이 가뭄에 「물人心」

○항화목욕탕앞에 줄을 이은 동네아이들. 똑똑의 수인 인심에 가슴에 시달린 주민들은 한결 걱정을 덜었다. <쇼보트기자 찍음>

<일요화제> 이 가뭄에 "물인심"

"식수있읍니다…필요한 분은 오세요" 영등포 시흥1동 향화목욕탕 安炳石씨 "이색간판"

▶ 1978.6.14조(1)1

◇朴대통령이 1백80여평의 논에 모심 모두 심은후 맨발로 논두렁을 걸어나오고 있다.

"水利 不安全畓을 밭으로"

朴大統領, 始興 葛峴1里에서 모내기

朴대통령내외분은 13일 오전 관내 과천 1980여평의 논 [illegible]도 [illegible]川면 [illegible]峴 [illegible] 모(신품종 [illegible]21호) 모 [illegible]

1리에서 직접 모내기의 농 [illegible]

朴대통령은 이날 孫[illegible]植 [illegible]

기도지사의 안내로 1여여명 의 청와대직원이 모심기를 하고있는 [illegible]

朴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치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1979.11.14 조간 2(6)

工場渡값으로 판매
冠岳-始興 2개지역에 LPG공급 전담회사

서울시는 13일 관악·시흥 2개지구 등에 대한 LP가스공급단위 사업체를 인가, 오는 12월 1일부터 가스공급을 하도록했다. 이 단위사업체는 LP가스가종전 영세상인들에 의해 공급됨에따라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등 부작용 고위험도가 높은것인데 앞으로 이들 두 지역은 숙인업체에 의해 가스를 공급받게된다.

이날 사업승인이난 한일개발은 시흥동 한양아파트주변의 1천가구를, 영등가스주식회사는 관악지역의 4천여가구를 맡아 가스를 독점 공급한다.

특히 이들 사업체는 종전 LP가스의 유통단계인 공장→대리점→부판장→용기상→실수요자의 단계를 거치지않고 공장도 직판가격으로 직접 공급하기때문에 가격도 10%정도 싸진다.

시는 LP가스의 단위사업체 제도를 영등, 강남지역에도 확대키로했다.

관악 시흥 2개지역에

LPG 공급 전담회사

▶ 1980.1.9 조간 6(6)

始興郡 서면~富川市 원종동
도로 9㎞를 新設

서울시는 8일 경기도시흥군서면소하리~부천시원종동간 9.29㎞에 너비 20m의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이도로는 경수산업도로에서 김포공항을 연결시키는 외곽도로로, 수원-안양등지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는 차들이 영등포도심을 거치지않고 갈 수있도록 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연결 시외곽교통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시흥군서면~부천시 원종동도로 9㎞를 신설

▶ 1980.1.16 조간 6(6)

金浦-始興-新林洞등 9개지구
區劃정리사업 2년延長

서울시는 15일 김포·시흥·신림동등 9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 사업시행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들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기간내에 사업시행이 안돼 다시 2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시행만료일은 81년12월31일로 됐다.

사업계획기간이 연기됨 지역과 면적은 다음과같다.

▲김포=1백42만3천평▲시흥=1백73만6천평▲신림=1백3만4천평▲화양추가=46만평▲신림추가=62만7천평▲천호=78만5천평▲광사=51만3천평▲영등추가=26만3천평▲이수=61만1천평.

구획정리사업 2년연장

김포-시흥-신림동등 9개지구

▶ 1980.3.12 조간 6 (1)

鐵山里(始興)에 새 衛星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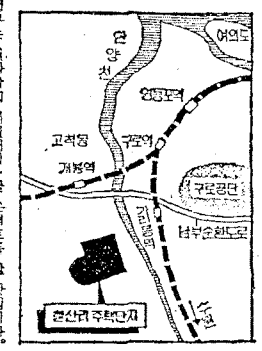
82년까지 人口 5만 규모

근로자 아파트등 8천家口 건립

서울에 인접한 京畿도始興군鐵山리 일대에 약 5만명규모의 위성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8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백1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鐵山리 일대 15만평을 개발, 아파트式 근로자용 기숙사 4천가구, 일반서민용아파트 4천5백가구등 모두 8천5백가구를 건립키로 확정했다. 11일 건설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평형 아파트식 기숙사 2천가구, 내년에 2천가구를 각각 건설, 서울九老공단 여성근로자 2만명을 수용키로 했으며, 일반서민용 임대아파트 13평형 4천가구와 분양아파트 17평형 5백가구는 올해 5백가구, 81년과 82년에 각각 2천가구를 연차적으로 건립키로 했다.

九老공단 女性근로자 2만명 수용

6월 착공… 빠르면 年末까지 入住



정부는 지난 77년 IBRD차관으로 이듬해 51만6천평을 개발, 인구 10만명이상의 서울위성도시를 건설함에 정이었으나 단지조성을 위한 부대시설비 1백80억원 염출을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미뤄 개발자체가 백지화 됐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문제가 큰 정책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자 九老공단근로자용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짓기로 결정, 鐵山리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한것이다.

九老공단 일대 약 10만명은 근로자중 7만여명이 전세, 삭월세생활을 하고 있다.

아파트 管理업체 審査로 免許발급

속보=서울시는 11일 주택제로 하려던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의 면허 발급방안(본보 2월22일자 6면보도)을 심사에 의해 시행키로 방침을 바꾸고 현재 17개사로 제한한 관리면허회사의 수급 늘려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일대에 수퍼마켓 파출소 병원 목욕탕등 부대시설및 복지시설도 세울 예정이다.

鐵山리 개발공사는 주택공사가 맡아 오는6월에 착공, 빠르면 연말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 4억5천만원을 지원, 上水道管, 3㎞(구경 4백50㎜) 매설및 도로포장을 하기로했으며 현재 自然綠地지역으로 묶여있는 이일대를 주거및 업무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근로자용 기숙사는 간구당 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 2만원, 일반임대용아파트는 보증금 1백50만원에 월세 3만5천원으로 할 예정이나 근로자용기숙사는 1년간의 입대가 끝나면 기업체에 분양, 기업체가 도차제으로 기숙사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鐵山리일대에는 현재 1천가구의 주민이 살고있다.

시흥 철산리에 새 위성도시

근로자 아파트등 8천가구 건립, 82년까지 인구 5만규모

▶ 1980.7.6 조간 6(1)

江南지역 給水難해소

내년末까지 八堂~잠실~시흥 送水管묻어

延長41㎞…百萬t급수 대비

서울시는 5일 팔당수원지에서 잠실을 거쳐 시흥동과 철산리에 이르는 한강이남지역에 금년하반기부터 81년말까지 총공사비 2백25억원을 투입, 41·4㎞의 상수도 송수관을 새로 묻기로했다.

이공사는 팔당수원지의 식수공급능력이 81년말까지 1일 40만t에서 1백만t으로 60만t이 늘어나는데 대비키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필요한 공사비 2백25억원 가운데 1백억원은 시중은행에서 기채로, 1백억원은 채무(외상공사)로, 25억원은 시비로 조달키로방침을 정하고 이중 채무 1백억원과 시비25억원은 올해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확정된 공사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하반기부터 81년 5월까지는 1백36억원을 들여팔당수원지에서~잠실~서초동을 거쳐 방배동~이수교에이르는 구간에 구경8백~2천2백㎜ 송수관 25·4㎞와 팔안리수원지~거여동~마천동까지는 구경 6백~9백㎜송수관 2·6㎞를 새로 설치하고 ▲81년6월부터 연말까지 89억원을들여 서초동~시흥동을 거쳐 철산리까지의 사이에 구경 1천5백~1천6백50㎜ 송수관 16㎞와 우면동 가압장을 새로 설치한다.

이공사가 끝나면 팔당수원지에서 공급되는 수도물 1백만t중 50만t은 이미 설치돼있는 송수관을 통해 강동·강남지역에 공급되며, 나머지 50만t은 일단 강동구 삼전동까지 그대로 송수된후, 이중 10만t이 청담배수지를통해 삼성동등 강남저지대, 영동교입구 일부지역동에 공급되고 10만t은 대치동 서초동 방배동등 아파트밀집지구에 공급된다.

나머지 30만t은 내년에 신설되는 강남구 우면동 가압장에서 가압돼 남부순환도로를 따라가다 영동과 사당동에 10만t이, 봉천동 신림동에 8만t이 공급되며, 나머지 12만t이 시흥동 독산동과 철산리 지역까지 공급된다.

또 이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강남, 강북지역에 나누어 공급하던 노량진 수원지의 8만t, 선유수원지의 12만t등 모두 20만t이 모두 강북지역에만 공급될 예정이어서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의 급수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된다.

내년까지 팔당~잠실~시흥

역수관묻어 강남지역 급수난해소